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의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 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제8회 전국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공모전

구 분	내 용
제목	달팽이 집
수상내역	최우수상(충청북도지사상)
작가	박연신
공모분야	시나리오
장르	영화, 드라마
소재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가족 형태(청주명소배경)
시놉시스	<p>1. 상우, 수진의 신혼 집 (밤)</p> <p>책상에 앉아 컴퓨터로 블로그를 쓰는 상우.</p> <p>(모니터 자막과 독백)</p> <p>‘인간과 동물이 평등할 수 있는 그곳. 아니 오히려 인간의 존재가 너무 나약해 감히 발을 디딜 수 없는 그곳으로의 여행이 기다린다. 겁 많고 나약한 인간을 위해 희생된 동물들에게 나를 마음껏 비웃으라고 나를 던지고 오련다. 그것이 우리 시작의 시작이어야 한다. 서로 발가벗은 몸을 똑똑히 보고 포장되지 않은 서로를 받아들이는 승고한 시간을 우리는 기다린다.’</p>



:: 최우수상 ::

충청북도지사상

달팽이 집



박연신

달팽이 집

1. 상우, 수진의 신혼 집 (밤.I)

책상에 앉아 컴퓨터로 블로그를 쓰는 상우.

(모니터 자막과 독백)

‘인간과 동물이 평등할 수 있는 그곳. 아니 오히려 인간의 존재가 너무 나약해 감히 발을 디딜 수 없는 그곳으로의 여행이 기다린다. 겁 많고 나약한 인간을 위해 희생된 동물들에게 나를 마음껏 비웃으라고 나를 던지고 오련다. 그것이 우리 시작의 시작이어야 한다. 서로 발가벗은 몸을 똑똑히 보고 포장되지 않은 서로를 받아들이는 숭고한 시간을 우리는 기다린다.’

타이틀 - 달팽이 집

(집을 지고 기어가는 달팽이 cg)

2. 홍대 클럽 - 스테이지 (밤.I)

젊음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 홍대 라이브 클럽.

신나는 락 밴드, 몽치의 공연으로 스테이지 앞은 음악을 즐기는 사람들로 들쭉인다.

얼핏 보면 남자 같은 보이쉬한 여성 락커 수진, 무대 위를 폴짝거리며 열창의 무대를 선보인다.

3. 클럽 출연자 대기실 (밤.I)

비좁은 클럽 대기실.

제각각 악기를 챙기고, 쉬고 하는 밴드들.

수진도 그 틈에서 수첩을 꺼내 뭔가를 체크한다.

밴드1 : 신혼여행 어디로 간댔지? 사과리 탐험?

수진 : 탄자니아 세렝게티

밴드2 : 힘들게도 간다.

수진 : 맥없이 휴양만 하는 거 싫어서. 동물들 천국에 가고 싶데.

그거 못 들어 주겠어?

밴드3 : 신혼여행이 뭐가 힘들겠어. 준비는 다 했어?

수진 : 뭐, 별 거 있나? 간단하게 사과리서 텅굴 옷 몇 개 챙기면 되지

밴드1 : 애가 애가, 첫날밤에 입을 속옷은?

뭐니 뭐니 해도 신부의 속옷은 하얗고 뽀얀 순수함의 결정체, 순백이다.
이거 죽인다.

밴드2 : (심드렁) 같이 산 게 몇 년인데 무슨

밴드1 : 그래도 신혼여행의 속옷 의미는 다르다.

얼만 큼 신경 써 준비 했느냐에 따라 그날의 분위기가 결정되고,
자고로 여자의 속옷 센스는 평생 센스야. 선배 말 들어.

밴드2 : 촌스럽게 무슨 순백 속옷이냐? 세고, 강렬하고, 야한 거.

호피, 이게 죽이지. 암호랑이가 돼서 격렬하게 덤비는 거지.

저 드넓은 초원의 굽주린 야생 호랑이들처럼 처절하게 끝장을 보는 거지

수진 : 아주, 소설을 쓰고 그림을 그려요. 이 저질 아저씨들아.

난, 아무 실감도 안 나거든? 결혼식이고 뭐고, 딱, 안 했으면 좋겠구만
상우가 독자라 안 할 수도 없고. 식당에서 봐. 축하 준비 잘 해와라

수진, 짐을 챙겨 대기실을 나간다.

밴드1 : 머스마 같은 게, 락 부르고 싶다고 어슬렁 찾아 왔을 때가 엇그제 같은데.

밴드2 : (쓱쓱) 수진이 내가 데려 가려했는데

밴드3 : 수진이 형한테 쥐 콩 만 한 관심도 없었거든

밴드2 : 개도 나한테 관심 좀 있었거든.

그런데 그렇게 멀쩡한 놈이 좋다고 쫓아 다닐 줄 알았냐고.

밴드3 : 됐고 축하 연습이나 하러 가자고.

우리 홍일점 결혼식인데 망쳐 놓을 순 없잖아

4. 백화점 - 속옷 매장 (저녁.I)

수진, 쇼핑백, 몇 개를 들고 쇼핑 하다 속옷 샅을 발견한다.

피식 웃고 들어가 죽, 훑어보는데.
순백색의 단아한 속옷 셋트를 집어 들려다 호피 무늬 속옷을 발견.
호피 속옷을 집어 거울에 대본다.
순백색 속옷과 번갈아 대본다.

수진 : (가우똥) 은근 신경 쓰이네. 뭘로 하지?

5. 헬스 장 입구 대로변 (저녁.E. 같은 시각)

유기견으로 보이는 지저분한 강아지 한 마리가 인도를 어슬렁 돌아다닌다.
헬스 장, 창가로 러닝머신을 하는 사람들이 보이고.
강아지 쪽으로 헬스 가방을 덜렁 거리며 다가오는 상우.
배를 툭툭 치고는 흡족한 미소를 짓는다.

상우 : 이젠 굿바이다 올챙이 배.
수진이가 좋아라 하는 배를 가진 남자가 될 거라고. 난, 이젠 수진이 남자니까.
내 최고의 결혼 선물이다.

그때, 상우 눈에 들어오는 강아지.
양쪽에서 차가 달리는 도로로 진입해 어쩔 줄을 몰라 한다.
깡깡 우는데.
사람들, 그런 강아지를 안타까운 시선으로 보는 이도 있고,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다.
상우, 역시 안타깝게 보다 할 수 없이 도로로 뛰어 들어
차를 요리 조리 피해 간신히 강아지를 잡는데.
그러나 미처 달려오는 차를 피하지 못한다. 쿵쿵
차에 부딪쳐 바닥에 쓰러진 상우.
혼비백산 놀라 도망치는 강아지.
상우, 가물가물 감아지는 눈으로 도망가는 강아지를 쫓는다.
차도를 벗어난 강아지를 보며 희미한 미소를 짓는 상우.
의식을 잃어간다.

6. 백화점 - 속옷 매장 (저녁.I 같은 시각)

수진, 결국 속옷 두 개를 다시 걸어 놓는다.

수진 : (피식 웃는다) 뭘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신혼 놀이야.

점원 : (다가와) 신혼여행 때 입을 상품 찾으세요?

저희, 신혼여행 패키지로 나온 상품이 있는데요 (안내 한다)

수진 : (쑥스럽게 쫓아가며) 그런 것도 있어요?

점원 : 커플 세트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여성분을 위해서만 따로 준비된 것도 있어요

점원이, 보여주는 눈부시게 화려한 순백의 속옷 세트.

점원 : 보통, 신혼여행용으로는 순백을 찾으세요.

수진, 가만 행복한 얼굴로 만져본다.
그제야 실감나는 얼굴이다.

7. 납골당 (낮.I)

검은 상복을 입은 뭉치 멤버들과 수진, 상우 부모님, 영석이 납골당 앞에 있다.
상우 모, 혼절 하다시피 겨우, 밴드들의 부축을 받고 서 있고
수진, 유골함에 눈을 떼지 못하고 킁킁 서있다.

상우 부 :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하니까 어서들 가.
끝까지 함께 해 줘 고맙네

돌아서는 상우 부의 눈가가 축축이 젖어있다.

상우 부 : (돌아보며) 어서 와. 서있을 힘도 없으면서.
자네가 거기 그러고 있으면 애들이 어떻게 자리를 뜨나. 애들 힘들어.

상우 모 : (왈칵) 상우야. 엄마 간다... 엄마 또 올게... 상우야...

상우 모, 흐느끼며 차마 안 떨어지는 발걸음을 겨우 떼고
밴드들 부축 하에 돌아선다.
남아있는 수진과 영석.

영석 : 여기 그렇게 두 눈 부릅뜨고 있는 다고 그 망할 자식이 돌아 오냐.
그만 가자.

수진, 들은 척도 안 하고 여전히 그러고 있더니
지갑을 열어 늘 꽂고 다니던 수진과 상우의 다정한 사진을 꺼내

유리 막 앞에 쫓는다.

수진 : 넌, 나쁜 자식이야... 넌, 날 개보다 못한 사람으로 만들었어...
어떻게 그러니? 니 목숨을 어떻게 개 목숨하고 바꾸니?

힘 풀려 바닥에 주저앉는 수진.
영석, 그런 수진을 착잡하고 안타까운 얼굴로 본다.

8. 수진의 신혼 집 (화창한 낮.I)

창이란 창이 블라인드가 굳게 닫힌, 컴컴한 실내.
부엌, 창을 통해 빛이 희미하게 들어온다.
박스에 담긴 짐들이 여기 저기 널려있고,
수진과 상우의 웨딩 사진도 커다란 액자로 거실 벽에 걸려 있다.
열려있는 방문으로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수진이 보인다.
그 옆에 역시 웅크리고 엎드려 있는 개, 짱아.
수진의 발을 혀로 핥으며 걱정스런 얼굴로 수진을 뵈는 영석.
그러나 저러다 그저 가만히 있는 수진.

9. 아파트 앞 주차장 (낮.E)

한 손에 보쌈집 봉투를 든 영석이 핸드폰을 종료하며 큰 한숨을 쉰다.

영석 : 진짜, 이 녀석. 핸드폰을 언제 까지 꺼두고 있는 거야.

아파트 입구로 향하는 영석.

10. 아파트 현관 앞 (낮.E)

벨을 누르는 영석.
아무 인기척도 안 나는 가운데 짱아의 짖는 소리가 들린다.

영석 : (문에 바짝 대고) 짱아야. 오빠. 짱아야 언니한테 문 좀 열어 달라해.

여전히 짱아는 현관에서 짖고

영석 : 수진아. 문 좀 열어봐. 보쌈먹자... 먹어야 기운도 차리고.
해를 봐야 기분도 나아지지. 오늘 날씨가 얼마나 좋은데

하지만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고.

결국, 영석, 문 걸이에 보쌈 봉투를 걸어 놓고 돌아선다.

영석 : 밖에 보쌈 놔두고 가니까 먹어. 너, 짬아도 굶기냐?

상우가 껍도 좋아 하겠다

돌아서는데 현관문이 덜컥 열리며 수척해진 수진이 보인다.

아픈 눈으로 수진을 보는 영석.

11. 수진 집 - 거실 (낮.I)

신발을 벗자마자 블라인드를 올리러 가는 영석.

쭈쭈 전부 걷어 올린다.

눈이 부셔 얼굴을 찡그리는 수진.

영석 : 광합성을 도대체 얼마나 안 쥔 거냐?

부엌으로 와 냉장고 문을 여는 영석. 텅 빈 냉장고.

한숨만 나온다.

영석 : 너 이러면 상우가 얼마나 속상해 하겠냐. 잘 지내야지.

상우 위해서라도 잘 지내야지

12. 수진 집 - 부엌 (낮.I)

식탁에 마주앉아 보쌈에 술잔을 기울이는 둘.

바닥에선 짬아가 사료를 거부하고 식탁 밑에서 보쌈에 눈독들이고

불쌍한 눈으로 영석과 수진을 오가며 눈치를 본다.

결국, 영석이 고기 한 점을 던져 준다.

영석 : (술잔 들이키며)

자기는 채식주의자 주제에 너는 고기 좋아한다고,

고기 집에서 자기는 도토리묵이나 시켜 먹던 놈인데 그놈이...

수진 : ...

영석 : 억지로 그 녀석 잊으려 하지 마.

그런 다고 잊혀 지지도 앓겠지만.

그 사람 이야기 나누고, 기억하고, 일상이 되고 그러면서 덤덤해 지는 거야.

힘들게 혼자 이리저 말고, 사람도 만나고, 공연도 하고, 니 몸을 피곤하게 굴리라고

수진 : ... 나 벌써 상우 얼굴이 기억이 안나.
사진을 보면, 아, 이렇게 생겼었지 상우가...
그러다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고... 근데 더 궁금해, 그 사람이.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6년을 연애 했으니 다 안다고 자부 했는데
곰곰 생각해 보면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
15살의 상우는 어떤 꿈을 꾸던 소년 이었는지...
20살의 상우는 어떤 생각을 하던 청년이었는지...
25살의 상우는 군대에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나라를 지키고 있었는지.
이제 와서 그런 게 왜 궁금한지... 진작에 물어 볼걸.

영석 : ... 15살의 상우는 별명이 스님 이었어.
고기는 고사하고 햄, 소세지도 못 먹고,
알다시피 행여 개미라도 밟을 까봐 땅만 보고 다니는 녀석이었으니,
심지어 부모가 스님이라는 소문도 돌았다니까...
부모님 두 분이 약국에 종일 계시니
혼자 있는 녀석은 온갖 동물을 사랑하기로 한 거지.
그러다 키우던 개가 세균에 감염돼 죽고,
그 충격에 고기도 못 먹는 아이가 된 거고.
그래서 생명 연장을 연구하는 학자가 되겠다고 한 거고...
25살의 상우는 좀 피짜였어. 내가 그쪽일은 잘 모르지만
세포로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연구를 할 참 이었지.
그래서 연구실에 자기 정자도 엄청 기증 했어.
군대 가기 전부터 비장하게 시작 하더니... 나한테도 하라고 얼마나 그러던지

수진 : ... (충격이다) 정자를 기증해 왔다고?

영석 : 그래. 연구를 하려면 정자가 많이 필요할 거라나?
생명 연장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기증할 수 있다고

수진 : 그럼, 어딘가에 상우정자가 보관 돼 있을 수도 있다는 거네?

영석 : 그럴 수도 있겠지

수진 : (화색이 돌며) 상우 정자를 기증 받으면 상우 애기 낳을 수도 있는 거잖아

영석 : 야, 너 설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13. 연구소 밖 벤치 (낮.E)

수진, 연구소 팀장과 벤치에 앉아 대화중 이다.
수진은 간절하면서 단호하고,
팀장은 진땀을 빼며 불편해 한다.

팀장 : 그 자료를 알 수 있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기증자의 자료는 철저히 비밀에 붙이는데다 연구소 직원이라고 특별하지도 않고요.

수진 : 팀장님, 제 사정 아시잖아요. 제가 오죽 하면 이러겠어요.
그 사람, 생명 연구를 위해 그렇게 애쓰던 사람인데, 한번만 알아만 주세요.
알아봐 주시면 깨끗이 단념 할게요

팀장 : (긴 한숨을 쉬며)
그게, 연구용으로 기증한 걸, 개인 용도로 쓸 수도 없는데다, (곤란한) 아이 참...

14. 연구소 안 (낮. I)

팀장, 컴퓨터를 뭔가 조회를 하고,
컴퓨터 맞은편으로 수진이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린다.
프린트 돼서 나오는 기록.
팀장, 수진에게 기록 종이를 건 낸다.

팀장 : (종이 가리키며) 상우로 부터 꾸준히 기증된 스펴은 전부 연구로 쓰였어요.
소중한 기증이었습니다.

수진, 가만, 기록된 종이를 보며 목례를 하고 쓸쓸히 돌아 서 출구로 향한다.
그런 수진을 착잡한 표정으로 보는 팀장.

15. 연구소 자판기 옆 코너 의자 (낮.I)

수진, 자판기 옆, 코너 벽의 의자에 앉아 기록 종이를 믿기지 않는 얼굴로 본다.
그때, 코너 돌아 자판기 앞쪽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데 팀장과 부소장이다.

부소장 : (자판기 커피 뽑으며) 상우, 약혼녀 웬일이야? 짐은 택배로 다 부쳤잖아

팀장 : (난처한) 그게... 상우가 기증한 정자로 얘기를 갖겠다고 찾아왔지 뭐예요

부소장 : 뭐? 참내...

팀장 : 안됐지만 있어도 줄 수도 없는데다, 다 연구로 소진됐지만요

부소장 : 아니, 그놈 정자는 왜 그렇게 잘 나가는데?

그 누구야? 예전에, 두 번 이혼 한 애. 그래 민주. 민주가 상우 정자로 그런 거지?

팀장 : 그러니까요, 하여간 그 애길 어떻게 해요. 청주에서 애, 혼자 키우나 본데

의자에 앉아 사색이 되는 수진.

벌떡 일어나 둘 앞으로 돌아서 다가온다.

수진 : ... 그...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색이 돼 놀라는 두 사람.

들고 있던 커피를 쏟는 팀장

팀장 : 앓 뜨거

16. 청주 대학교 생명 과학 연구소 - 실험실 (낮. I)

곰 같은 기준이 손바닥에 올려 진 햄스터와 대화중이다.

햄스터, 더욱 가련해 보인다.

기준 : 다른 쥐들은 손가락 핥아주며 애교도 잘 떨고 그러는데

넌, 왜 애가 그렇게 무뎡뎡하냐?

내가 개네들 보다 너랑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데,

세상엔 일방적인 건 없다. 사랑도 주고받는 것이지.

난, 이젠 나만 주는 사랑 안할래. 명심해.

다시 케이지로 햄스터를 넣으려던 기준.

하지만 햄스터, 기준의 손바닥에서 뛰어 내려 순식간에 얼른 틈으로 도망간다.

기준 : 이놈이. 야, 흰둥아. 흰둥아 나와라. (바닥을 훑고 다니며)

어딴니? 흰둥아

차분히, 다른 케이지의 실험 쥐 들을 들여다보며 일지를 쓰던 민주.

민주 : 내, 언제고 너 그럴 줄 알았다.

인류 생명 연장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놈들이다.

너보다 나은 족속들인데 그렇게 함부로 다루나

기준 : 그래도 내 사랑이, 선배 사랑보다 더 강력할 걸?

민주 : 얼른 찾아라. 개한테 들인 공이 얼마데

기준 : (바닥에 얼굴을 바짝 대고 애타게 부른다) 흰둥아... 흰둥아

17. 초등학교 운동장 (낮. E)

초원, 운동장을 가로지르면 앞서 하나가 걸어가는 게 보인다.

망설이다 하나를 부르려는 찰나, 여학생 한명이 하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 곁으로 달려들어 나란히 앞서 간다.

그 뒤를 힘없이, 부러움과 질투 섞인 얼굴로 뒤따르는 초원.

그때, 걸려오는 전화.

발신 용감한 엄마다.

초원 : 왜?

민주 (E) : (애교 섞인) 딸! 집에 가는 길?

초원 : 어... 맨 날 똑같은 시간에 전화하면서 똑같은 질문만 해

민주 (E) : 근데, 딸 왜 그렇게 힘이 없어?

초원 : 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민주 (E) : 꼭 봐야 아냐? 엄마랑 딸인데?

초원 : 네... 네 (끊으려다) 근데 엄마?

민주 (E) : 왜?

초원 : (가만 앞서 가는 하나를 보며 망설인다) ... 아니야. 이따 봐

(하고 끊는다.) 엄마한테 연애 상담 해 봤자 지.

남자는 아무 짝에도 필요 없는 피곤하기만 한 존재라고 할 게 뻔한데

가만, 하나 뒤를 멀찌감치 줄줄 따르며 걷는 초원.

18. 청주 대학교 생명 과학 연구소 - 실험실 (낮. E)

기준, 안전하게 케이지에 흰둥이를 집어넣는.

기준 : (장난으로 호통 친다.)

흰둥이 이 녀석, 니가 인류에 이바지한 걸 높이 사 눈, 감아준다.

민주, 가우똥, 전화를 끊고 컴퓨터로 일지를 정리를 하고.

기준, 손을 씻으며 흘끔흘끔 그런 민주를 쳐다보는데,
여전히 컴퓨터로 자판을 두드리던 민주.

민주 : 또 뭐야? 왜 흘끔거리는 거야?

기준 : (뜨악 하는) 도대체 눈이 어디 달린 거야?

민주 : 그냥 보이거든? ... 왜?

기준 : (풀죽어 뜜들이다) ... 내가 말한 거 생각해 봤냐고?

민주 : 니가 말한 거 뭐?

기준 : (소심한 발끈) 정말 모른 척 하기야?

민주 : (딱하단 얼굴로) 이 젊고 창창한 놈아.

제발, 저 캠퍼스에 푸르고 싱싱한 것들 좀 보고 정신 좀 차리세요.

난, 이혼을 두 번이나 한, 남자라면 발바닥의 티눈만큼 지겨운 여자야.

무슨 생육을 먹으려고 나한테 그딴 고백을 한 거냐?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고맙게 여겨.

나를 더 이상 나쁜 여자로 만들지 마라

기준 : (풀죽어) 날, 그 전 남편들하고 비교하지 말라고.

난 난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민주 : (안타깝게 보며) 너, 좋은 남자야.

나 같은 여자한테 너무 아까운 좋은 남자라고.

좋은 남자는 좋은 여자 만나야 되는 거잖아

기준 : (용기내서 발끈) 과거가 무슨 문제야? 과거랑 살 거야?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살 사람들이라고.

왜 자꾸 과거를 들먹이면서 자신이 행복할 권리도 못 누리고 사냐?
... 혼자 애 키우기 힘들다며 ... 남자 품에서 잠들고 싶다며

민주 : (화들짝) 내가? 미쳤어. 내가 그랬다고?
(때릴 듯이 뛰어 들며) 이제, 어디서 선배를 상대로 유언비어를 날조해?

기준 : (도망치며) 그랬다고. 지난 주, 비오는 날, 한잔 하고 싶다 던 날,
내 어깨에 기대 그랬다고. 못 믿겠으면 사진 보여줄까? 폰 카로 찍었는데

민주를 피해 뛰어 다니며 스마트 폰을 꺼내 사진을 찾는. 찾았다.
민주에게 쑥 내미는.
사진 속, 기준, 흐뭇하게 웃고, 그 어깨에 기대 민주, 해맑게 발짱게 웃고 있다.

민주 : (속 터진다) 내가 미쳐. 그 사진 얼른 못 지워? 지워. 지우라고

기준 : 이걸 왜 지워? 이, 사랑스러운 걸

민주, 약 올라 죽는다.

19. 민주 집 전경 (저녁. E)

아담한 단층 양옥집. 마당이 예쁘게 꾸며진 소박한 집이다.
베란다 창으로 마루에 배를 깔고 책을 보는 초원이 보인다.
대문 앞으로 멈춰서는 민주 차.

20. 민주 집 (저녁. I)

현관이 열리며 민주가 들어온다.

민주 : 딸! 엄마 왔어

초원 : (빠죽 고개만 들어 올려) 다녀오셨어요?

민주 : (바지런히 욕실로 가 손을 씻으며) 오늘 하루는 어땠어?

초원 : 아까도 물어보고. 별일 없었다고요

민주 : (욕실에서 나와 부엌으로 총총 향하며) 엄마는 글썄,
(물 컵을 들고 다시 쪼르르 거실로 나온다) 기준 아저씨가

(생각하면 기가 막히다) 그래, 타향살이하는 노총각, 외롭겠지.
벽보며 얘기하는 거 지겹겠지.
동물하고 대화 하는 거 그래, 이해해 준다 이거야. 근데, 개 툴아이 아니니?
어떻게 내가 좋데? 멀쩡한 총각이, 어떻게 두 번이나 이혼한,
애 딸린 싱글 맘인 내가 좋데. 내가 개네 엄마면 거품 물지

초원 : (책에 눈 안 떼고 시니컬하게) 그거, 자랑하는 거야?

민주 : 뭐?

초원 : 자랑 같은데?

민주 : 애는 뭐래? 야, 넌 엄마 얼굴 좀 보고 얘기해. 기집애

초원 : (책, 탁 덮고 민주 보고) 그리고 엄만, 남의 욕 좀 그만 해.
내가 뭘 보고 배우겠어? 나 그런 거 듣기 싫거든

민주 : 하여간, 딸! 엄만, 딸한테 결혼 하란 소리 안 할 거니까,
남자한테 빌붙어 살 생각 말고, 니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애 낳고 싶음 혼자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세상 이니까

민주, 다시 방으로 자리 뜨고,
초원, 썰쭉한 얼굴로 그런 민주를 야속하게 본다.

초원 : (혼자 중얼거린다) 자긴 해 볼 거 다 해보고.
난 결혼도 하고, 애기도 낳고 싶거든요.

민주 : (방에서 큰 소리로) 뭐라고?

초원 : 아니야.

민주 : 이리 와봐. 엄마 자크 좀 내려줘

초원 : (일어서 툴툴 방으로 향하며) 혼자 살지도 못하면서

21. 청주 가로수길 (낮. E)

짹짹하게 쪽 뺀 청주의 진입로, 가로수 길을 승용차로 몰로 가는 수진.
짹아가 옆 좌석 창가에 앉아 고개를 내밀고 바람을 쐬고 있다.

상우과 수진이 뽀뽀하는 사진이 스프링 액자에 꽃혀
차가 움직일 때마다 흔들거린다.

팀장 (V) : 두 번 이혼하고 남자는 필요 없다던 선뎀데, 그렇게 애는 갖고 싶다고,
술만 마시면 정자 좀 기부해라 해서 다들, 기겁하던 선뎀데,
상우가 학부 시절, 아마 그게 첫 번째 기증이었을 거예요.
군대 가기 전에 젊고 튼튼한 정자 기부 한다고 연구소에 왔는데
그 선택이 받은 거죠. 그리고 그 길로 시술 받아 임신을 하고,
결국, 자백하고 학교 떠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청주에 있는 대학에 연구원으로 있단 소리 들었어요.

수진, 뭔가에 홀린 듯, 운전하며 도로를 가로 지른다.

22. 청주 대학교 생명 과학 연구소 - 실험실 (낮. I)

프린트에서 나오는 자료를 챙기는 민주.
가운을 벗고 나갈 준비를 한다.

기준 : (컴퓨터로 자료를 찾는다) 어디가?

민주 : 오 교수님 하고 라마다에 세미나 간 다니까. 뒷마무리 잘해라

기준 : 또 기사 노릇 하러 가는군.
기름 값은 고사하고 밥 한 번 안 사주면서 부려먹긴

민주 : (인정) 그래도 어찌냐. 내가 올인테 참아야지

기준 : (반짝) 내가 마중 갈까?

민주 : 뭐?

기준 : 구원투수로 가서 호텔에서 저녁 좀 먹자하면 분명
오 교수님은 도망 갈 거고,
덕분에 선택은 호텔에서 뷔페를 먹고 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지.
왜냐하면 내가 사 줄 거거든

민주 : 이놈아. 그딴 거 신경 쓸 시간에 연구에나 열중 하세요
(쌩하니 가방을 들고 나가 버린다)

기준, 억울하단 얼굴로 뭔가 말하려다 더 말하지 못하고 탕 닫히는 문만 바라본다.

기준 : (케이지에서 흰둥이에게) 저걸, 자존심이라 해야 되냐?

미련하다고 해야 되냐? 아님, 나한테 진짜 남성적 매력이 없는 거냐?

응? 진짜, 이게 무슨 놈의 몸쓸 사랑이나 이게

23. 청주 대학교 전경 - 주차장 (낮. E)

학교 전경을 앞으로 파킹 되어지는 수진 차.

차에서 내리는 수진.

다소 긴장 된 얼굴이다.

수진 : (숨구멍으로 남겨놓은 창문사이로 짱아랑 마주한다)

짱아야. 암전히 기다리고 있어. 언니, 큰일 치르러 간다.

막, 화내면 어떡하지? 아... 겁난다.

수진, 주위를 둘러보며 위치를 찾는데, 마침 주차장으로 다가오는 민주와 오 교수.

수진 : 저, 여기 생명 과학 대학이 어딘가요?

민주 : 계속 쪽 올라가시다 두 번째 건물이에요

수진 : 네, 감사합니다.

수진, 큰 호흡을 뱃고는 비장한 얼굴로 걸어간다.

오교수 : 내가 보낸 메일 자료 다 뽑아왔어?

민주 : 네

오교수 : 가는 길에 물 좀 사

민주 : 네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들어가는 민주.

뒷좌석 오 교수까지 차에 오르니 곧, 차가 출발하며 유유히 주차장을 빠져나간다.

24. 청주 대학교 생명 과학 연구소 - 실험실 (낮. I)

기준, 연구 일지를 적으며 케이지 안의 토끼에게 말을 걸고 있다.

기준 : (뭔가를 적으며) 오늘도 건강하게 살아 있구나.

인류가 니네한테 큰 빚을 진다. 니네의 희생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데...

누군가 널 기억한다면 그건, 날거야.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며 수진이 잔뜩 긴장한 얼굴로 들어온다.

수진 : 저, 여기, 한민주씨 라고 계신가요?

기준 : (돌아서며) 지금 자리 비우셨는데요. 오늘은 아마 안 들어오실 거예요

수진 : 그럼,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 까요?

기준 : (가까이 다가서며)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지금 세미나 때문에 출타중인데

수진 : (낭패한) 그럼 혹시, 댁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오늘 꼭, 만나 봐야 하는데

기준 : (살피며) 어디서 오셨는지,

누군지 출처를 밝혀 주셔야 제가 알려드리던지 하지요

수진 : (당황한) 아, 네... 그렇죠.

저 서울에서 여쭙볼 일이 있어 왔어요.

한민주씨, 혼자, 아이 키우시는 분 맞지요?

기준 : (경계하며) 그건 왜요?

수진 : (당황해) 서울에서 제 약혼자와 같은 연구소에 다니셨어요

기준 : (뭔지 싶어 경계한다)

25. 민주네 집 앞 (낮. E)

민주네 집 앞에 세워지는 수진 차.

멀리, 초원이 신발주머니를 흔들며 집 쪽으로 다가온다.

수진, 차에서 내려 쪽지의 주소로 번지수를 확인하는데.

초원이 대문 앞에 다가와 열쇠로 문을 열려다 수진을 말끄러미 쳐다보는데.

초원 : 누구세요? 이 집에 온 거예요?

수진, 초원의 얼굴을 보자 상우가 겹쳐져 깜짝 놀란다.
수진의 놀란 얼굴에 초원 역시 의아해 하고.

초원 : 이 집에 온 거 맞아요?
엄마 만나러 오셨음, 엄마 집에 안 계시는데

수진 : ... 너, 이 집에 사니?

초원 : (살짝 경계하며) 그런데요.

수진, 초원의 얼굴을 볼수록 상우가 겹쳐진다.
결국, 왈칵, 눈물을 쏟는
초원, 더욱 의아해 수진을 보고,
수진, 당황해 다시 차로 돌아가 서둘러 차를 몰고 자리를 뜬다.

초원 : 뭐야? 이상한 언니네? 왜 울어?
(차가 골목을 다 빠져갈 때까지 한참을 본다)

26. 대청호 (낮. E)

수진, 안은 짙아를 쓰다듬으며 전망대에 올라,
한 눈에 들어오는 맑은 호수를 바라보며 마음을 진정 시킨다.

수진 : ... 진정해... 수진아 진정해 ... 왜 떨어
... 그런데 어쩔 저렇게 상우랑 똑같니? 상우야... 니 딸을 보고 말았어

27. 라마다 플라자 청주 호텔 회의장 로비 (낮. I)

기준, 로비 쇼파에 앉아 있다
회의장 문이 열리면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 사이로
오교수와 민주를 발견 하곤 앞으로 다가선다.

오교수 : (기준을 먼저 알아보고) 자네가 여기엔 웬일인가?

기준 : (오교수에게 정중히 인사한다) 선배한테 보고 할 게 있어서요.

오교수 : 무슨 보곤지 모르지만,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민주, 그런 기준을 썰어보며 난감해 하지만 한편으론 다행이다 싶어 한다.

기준 : (넉살 좋게) 교수님, 모처럼 호텔에 왔는데 저녁 함께해요.

오교수 : 저녁? 난, 배 안 고평데.

기준 : (그러면 그렇지) 그럼, 저희는 식사 하고 가겠습니다.

오교수 : (이건 뭐야 싶은. 기분 언짢다) 그래? 그렇게들 해

민주 : (살피며) 교수님, 그냥 가셔도 괜찮으시겠어요?

오교수 : (떨떠름) 맛있는 거 먹고 와

기준 : 안녕히 가세요

민주 : 조심해서 가세요.

오교수, 먼저, 로비를 떠난다.

그런 오교수를 바라보는 민주와 기준.

기준 : 와, 진짜. 이혼을 당했어도 싸다 싸

민주 : 한편으론 불쌍하기도 하다.

그래도 혹시, 아냐, 모아둔 밥값으로 준 재벌일지?

기준 : 저런 남자, 와이프 밥 먹는 것도 아까와 할 남자라고

민주 : 저녁 먹자. 배고프다.

기준 : 호텔 뷔페 먹자. 자취생, 오랜만에 먹고 싶은 거 다 좀 먹자.

내가 쏜다니까

민주 : (좀 망설이지만) 팔래미한테 살짝 미안하지만 먹자.

근데, 너 다른 뜻 품지 마라. 나 지금 배 무지 고파서 그런 거다

기준, 으쓱해 민주 의 가방도 들어주고

다정하게 옆에서 아양 떨며 걸어간다.
그런 기준을 흘기면서도 싫지 않은 민주.

28. 민주 집 앞 (낮. E)

수진, 민주 집 앞 건너편에 차를 세워두고 내리지 않은 채,
거실 창으로 비치는 내부를 살핀다.
옆드려 책을 보고 있다가, 비가 후두둑 떨어지자
얼른 마당으로 뛰어 나와 빨래를 거두는 초원.
수진, 그런 초원을 가만, 바라본다.

29. 민주 집 앞 (저녁. E)

초원, 우산을 쓰고 대문 밖으로 나오는데,
차 안의 수진, 그런 초원을 발견 하고는
서둘러 우산을 들고 차 밖으로 나와 초원을 뒤 따른다.

30. 분식 집 (저녁. I)

초원, 분식집에 비치돼 있는 만화책을 보며 떡볶이, 김밥을 먹고 있다.
멀찍이 초원이 보이는 자리에 앉아 떡볶이를 먹는 수진.
먹으며 초원을 흘끗흘끗 본다.
그런 수진을 수상한 눈매로 보는 분식집 주인.

주인 : 초원아! 엄마, 오늘 많이 늦어?

초원 : 세미나 있다는데요

주인 : 혼자 있기 무서우면, 여기서 기다려

초원 : (먹으며) 괜찮아요. 숙제도 있고

주인 : (수진을 흘끗하며) 무슨 일 있거나 하면 여기로 얼른 달려와

초원 : 네. 문단속 잘 하고 있을 게요

초원,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한다.

초원 : 잘 먹었습니다.

주인 : 무서우면 여기로 와라. 세상이 하도 수상해서

초원 : 네

초원, 우산을 펴고나가는.

수진도 얼른 뒤따라 계산하고

초원을 뒤 따르려는데,

주인 : (수진을 위 아래로 훑으며) 여자야, 남자야.. 지금, 저 애 따라 다니는 거야?

수진 : (놀라) 네?

주인 : 떡볶이 먹으려고 들어왔음, 떡볶이나 먹을 것이지 왜 저 애를 흘끗거리?

수진 : (당황한) 그런 게 아닌데요.

주인 : 내가 여기서 톡톡히 보고 있으니까, 무슨 허튼 수작 생각도 하지 마쇼

수진 : (난감해 본다)

31. 민주 집 앞 (밤. E)

수진, 여전히 차 안에서 집 안을 들여다보고,

초원은 베란다 창으로 그런 수진을 가우뚱 보는데,

민주의 차가 비를 가르며 대문 앞에 다가와 멈춘다.

수진, 민주다 싶어 긴장해 건너편을 유심히 보는데

가로등에 비친 차에선 민주가 기준과 노닥거리는 모습이 보여 진다.

민주는 앞으로 꼬꾸라질 만큼 웃고, 기준은 그런 민주의 모습에 더 신나 떠드는.

32. 수진 차 (동 시간. 밤. I)

민주의 그런 모습을 보니 화가 나는 수진.

수진 : 어린 딸은 늦게 까지 혼자 두고, 남자랑 아주 좋아 죽네 죽어.

계속 창가에서 엄마만 기다리고 있는데

민주, 여전히 웃으며 기준을 때리고,

수진 보다 못해 차에서 내린다.

33. 민주 집 앞 (동 시간 . 밤. E)

민주, 기준, 동시에 차에서 내리는데

민주 : 차 몰고 가라니까. 비도 오는데, 늦지만 않게 데리러 와

기준 : 내일, 땀 소리 하기 없기다.

차가 이상해 졌다느니, 기름이 이렇게 많았다느니

민주 : 너, 왜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모냐? 남의 친절을

그러다, 먼저 수진을 알아보는 기준.

기준 : 어! 아까 학교에 오셨던 분이죠?

민주 : (그제야 수진을 돌아본다.)

기준 : 얘기 했잖아. 전에 선배 일하던 연구소에서 선배 찾아 왔었다고

민주 :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진을 스캔하는 데 아무리 봐도 모르는 사람이고)
누구세요?

34. 민주네 거실 (밤.I)

수진, 어색하게 앉아 있고

그런 수진을, 방문을 살짝 열고 몰래 훑쳐보는 초원.

민주, 어서 말해 보라고 재촉하는 얼굴로 수진을 뚫어 쳐다본다.

민주 : 무슨 일로 서울에서 청주까지 내려와 늦도록 기다리신 거예요?

수진 : (말 못하고 우물쭈물)

민주 : (애써 태연하게) 서울에 안 올라간 지 하도 오래돼서 연구소 사람들도 많이 바뀔
겠어요.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야?

수진 : ...

민주 : 최근에 암 치료 신약 허가 나왔다는 기사 봤어요.

연구소 완전, 잔치 분위기겠어요

수진 : (단호한 표정으로 각오하고 입을 연다)
... 죄송합니다. 전, 연구소 직원은 아니고요

민주 : (뭔가 있는 듯, 하다. 탐색하는)

수진 : 제, 약혼자가 그 연구소에 다니다 열흘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했어요

민주 : (이 여자가 무슨 소리를 하나 싶은)

수진 : 오해 말고 들어주세요. 제가 뭐 어찌자고 온 건 아니고요.
남자 친구의 아이를 본다면 맘에 위로가 될 것 같아서요

민주 : (무슨 소린가 싶고, 살짝 미친 사람 아닌 가 의심스럽다)
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수진 : (이미 각오 한 듯, 주눅 들지 않는다)
... 12년 전에 학생에게 연구용으로 기증 받은 정자로
아이를 가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학생이 제 약혼자예요

민주 : (망치로 얻어맞은 얼굴로 하얗게 질린다. 더듬더듬)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집에 밤에 찾아와?
어서 가세요. 별, 이상한 사람 다 봐

수진 : 제가 이상하게 보일 거고, 실례인줄 알지만 제가 어찌려고 온 거 아니예요.
그냥, 궁금했고, 알고 싶고 ...
결혼식 이틀 전에 도로에서 강아지 구하다 사고 당했어요.
그 사람의 아이가 어딘가에 살아 있다는 벅찬 맘으로 무작정 온 거예요. 당황스럽겠지만
화 내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민주 : (뒤편 할 말이 없다)...
무슨 근거로 이러시는지 모르겠지만, 볼 일 끝났으면 이제 나가주세요.
잘 전달 됐으니까, 내 딸 봤죠? 그럼, 이제 끝난 겁니다.
당신과 상관없는 아이니까 더 이상, 찾아오거나 하지 마세요. 가 주세요

방 문 틈으로 상황을 살피던 초원.
수진의 말에 별 동요 없이 무덤덤한 얼굴로 거실의 상황을 살피고 있다.

35. 모텔 방 (밤. I)

짱아는 침대에 한자리 차지하고 잠을 자고,
바닥엔 이미 몇 병 마신 듯, 빈 맥주 캔이 널려있다.
수진, 창문을 열어 비가 쏟아지는 창밖을 보며
상우가 있는 듯 떠들며 술을 마신다.

수진 : ... 씨도둑은 못한 다고 자기랑 똑같이 생겼더라...
나한테도 자기 닮은 아기 남겨 주고 가지... 이렇게 외롭게 혼자 가 버리냐...
그 애는 아빠가 어떤 사람일지 알고 싶을까?...
우리가 애 낳았어도 그렇게 예뻐질까?... 비가 오지게 오는 밤이다

36. 민주 네 거실 (밤.I)

민주와 초원, 바닥에 주저앉아 빨래를 갠다.

민주 : (초원 의식해) 너한테 아빠는 없다. 알지?

초원 : 내가 애기 때부터 제일 많이들은 말이거든
(생각하더니) 근데, 그 언니, 슬프겠다 그치?

민주 : 행여나 그 여자 또 찾아오거나 하면 절대 문 열어 주지 마.
정신 나간 것도 아니고,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초원 : 근데 엄만, 그게 그렇게 기분 나빠?

민주 : 그럼, 그게 말이 되니?
니가 무슨 진짜, 내가 그 사람하고 사랑해서 낳은 것도 아니고.
넌 그냥, 엄마가 아길 가지려 정자가 필요해서 그 사람 정자를 얻은 것뿐이야.
신경 쓸 것도 없고 궁금해 할 필요도 없어.

초원 : (곰곰 생각한다) 왜 하필 그 사람 거였어? 잘 생겼어?

민주 : (생각해 본다) 잘만 생겼냐. 그 학생이 실습 나오면 빛이 났지.
예의도 바르고. 훈훈했어

초원 : 엄마, 그 아저씨 좋아했구나?

민주 : (흘리며) 널 좋은 유전자로 나오려고 엄마가 다 포기 한 거야.

희생한 거라고. 넌, 그냥 엄마 딸이야

초원 : 그렇다고, 그 사람이 내 아빠가 아닌 것도 아니잖아.

민주, 뻔히 그런 초원을 어이없어 낫선 시선으로 바라본다.

초원 : 근데, 엄마, 학회 간 거 아니야?

민주 : 어. 그렇지

초원 : 근데, 왜 아저씨랑 같이 왔어?

민주 : 어. 같이 갔다가 비 많이 와서. 차 가져 가라고

초원 : 난, 떡볶이로 저녁 먹었는데 엄만, 맛있는 거 먹고 왔나봐.

엄마, 배 볼록 나온 게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자기 방으로 총총 가버리는 초원.

민주 : 잘 거야?

초원 : 어. 잘 자 (방문 닫고 들어간다)

민주 : (괜히 미안한) 아휴, 딸래미 무서워 혼자 맛있는 것도 못 먹고 다니겠네.

근데, 그 학생이 죽었다고? (안타깝다)

37. 민주 차 (아침. I)

기준이 운전하고 도로를 달린다.

기준, 흘긔 흘긔, 눈 감은 민주를 살피고.

민주 : (여전히 눈 감고) 자꾸 흘긔거리며 보지 마라

기준 : (허적 놀라는) 도대체 선패는 눈이 어디 달린 거야?

민주 : 그 느끼한 시선, 집어 치워라

기준 : (셀쪽해 지고) 근데, 어제 그 여잔 뭐야? 왜 밤늦게 까지 기다린 거래?

민주 : (음박지르는) 너, 또 한 번 출처도 모르는 사람한테 주소 가르쳐 줘라?

기준 : 왜? 그러면 안 되는 사람 이었어?

민주 : 참내, 내가 살면서 그 사람과 엮일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기준 : 누군데?

민주 : (쑥쑥한)... 초원이 정자 기증자 약혼자.

기준 : (허걱. 놀라) 뭐? 그게 가능해? 쌍방간에 비밀에 부치는 거잖아

민주 : (긴 한 숨을 쉬며 풀 죽는다) 그게... 그렇게 됐다.

기준 : (캐내려) 뭐 있지? 뭔가 있는 거지?

38. 서울 연구실 (플래쉬 백. 12년 전)

연구실에 혼자 앉아 현미경을 들여다보는 30대 중반의 민주.

그때, 앓던 상우가 연구실로 들어와 민주에게 어색하게 아는 체를 하는데.

상우 : (해맑게 웃으며) 안녕하세요. 저 97학번 학생인데요.

생물 공학과 실습 때 봤는데

민주 : (돌아보면 기분 좋은 웃음을 지어준다) 아네. 그래요.

상우 : (둘러보며) 아무도 안 계세요?

민주 : 네? 아... 주관학회 때문에 모두 자리를 비웠어요. 누구 찾아 오셨어요?

상우 : (머쓱하고 쑥스럽게 웃으며)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민주 : 무슨 일 때문인데요?

상우 : (쑥스럽다) ... 제가 내일 모레면 군대에 가는데

민주 : (말똥말똥 쳐다보고)

상우 : ... 군대 가기 전에 생물 학도로써 제가 뭔가 세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했어요

민주 : (무슨 소린 가 싶다)

상우 : 튼튼하고, 신선한, 건강한 정자를 기증하고 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제 정자가 크게 이바지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민주, 살며시 쿡, 웃고, 그런 민주를 보며 상우도 해맑게 웃는다.

39. 서울 연구실 (12년 전. 낮. I)

상우, 민망해하며 허연 액체가 든 병을 민주에게 건 낸다.

상우 : 그럼, 좋은데 쓰여 주십시오.

민주 : (받으며) 아무쪼록 건강하게 잘 다녀와요

상우, 연구실을 빠져나가는.

그런 상우의 뒷모습을 흐뭇하게 보는 민주.

병에 붙일 스티커를 쓰다가 뭔가 섬광을 스친다.

갑자기 정자가 담긴 병과 소지품을 챙겨 서둘러 나가는 민주.

40. 민주 차 (낮. I)

운전 하던 기준, 경악하며 급브레이크를 밟고

기준 : 선배.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른 거야? 그런 사람이었어?
초원이가 그렇게 생긴 아이라고?

민주 : 참, 괜찮은 학생이었거든. 눈에 띄게.

실습 때도 그 애 때문에 혼쭐했는데. 왜 그런 아이 있잖아.

같이 있으면 그 존재로 미소 짓게 되는 사람.

기준 : 아이고야. 내가 완전 싫어하는 스타일이구만

민주 : 윤리고 뭐고, 탐나더라고. 애는 갖고 싶은데 두 번 이혼에 남자는 싫고,
정체도 모르는 남자의 씨는 더욱이 받기 싫고...

두 번이나 유산해 자신은 없었지만 내 피가 흐르는 아이는 꼭, 낳고 싶었어

기준 : 그래서, 들켜서 쫓겨 난거야?

민주 : 쫓겨 난 게 아니고, 내가 죄책감에 나온 거야.
양심선언하고. 다들 경악 하더군. 너처럼... 그렇게 키우는 초원인데...
근데, 그 학생이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데. 강아지 살리려다가

기준 : 아이고. 쫓... 그거 알려 주려 온 거래? 어떻게 알고 온 거야?

민주 : 몰라. 궁금해서 왔다는데. 은근 신경 쓰이네.
상관없어도 되는 거잖아

다시 눈 감아 버리는 민주.
하지만 다시 슬며시 뜬 눈으로 창밖을 심란한 표정으로 본다.
기준 역시, 심란하다.

41. 초원 학교 앞 (낮. E)

초원이 친구들과 어울려 교문을 빠져 나온다.
그 모습을 차에서 지켜보는 수진.
초원이 이동하는 데로 조용히 뒤 따르는

42. 골목 (낮. E)

아이들과 헤어져 혼자 걸어가는 초원.
가만 걸어가다 획, 몸을 돌려 차안의 수진을 뵈히 바라본다.
운전석 옆으로 와 창문을 열라 수신호를 보내는 초원.
창문이 내려치고 수진이 초원에게 어색한 미소를 던지는데 초원, 짱아를 발견한다.

초원 : 개 키우세요?

수진 : 짱아야

초원 : 짱구 동생 이름이네. 근데 왜 자꾸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엄마가 언니랑 말하지 말라고 했던 말이에요

수진 : (절박한) ... 나,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냥... 널 알고 싶어

초원 : (어이없어) ... 네?

수진 : 너, 아빠가 어떤 사람 이었는지 궁금하지 않아?

초원 : 아빠요? 난, 원래 아빠 없는데요.

언니도 알다시피 엄마가 정자 기증받아 낳은 거잖아요.

생물학적으로 아빠일지 모르지만 엄밀히 말하면 아무 상관없잖아요

수진 : 그래... 그렇지만, 그 기증한 사람, 궁금하지 않아?

그 사람과 니가 얼마나 닮았는지,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산 사람인지... 니가 알아줬으면 해.

이젠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넌, 유일하게 그 사람의 피를 물려받은 사람이니까

초원, 절박한 수진을 뻔히 바라본다.

43. 민주 집 거실 (낮. I)

짱아, 집이 낫선지 수진 옆에서 붙어 옆드려 눈치만 살핀다.

초원, 주스를 컵에 따라와 수진 앞에 놓는다.

초원 : (앉으며) 엄마 한 텐 비밀이에요. 뭐든 물어봐요. 날, 알고 싶다면서요

수진 : (초원의 얼굴을 눈, 코, 입 하나씩 뚫어지게 보는)

코하고 입이 상우랑 똑같네

초원 : 내 기증자 이름이 상우예요?

수진 : 이상우. 34살. 열흘 전쯤에 하늘나라로 갔어.

도로에 뛰어든 강아지 구하려다가

초원 : (흠칫 놀라는) 동물을 좋아하셨어요?

수진 : 응. 이 짱아도 유기견인데 상우가 데려다 키운 거야. 채식주의자고.

알고 보면 동물 털 알러지 있어 매일 벅벅 긁고,

기침한번 터지면 병원에 실려 갈 정도면서 그랬어.

초원 : (반갑다) 나도 동물 털 알러지 있는데.

엄마가 동물 싫어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더 못 키워요

수진 : 먹는 건 뭐 좋아해?

초원 : 과일이요. 딴 건 잘 안 먹는데 과일은 엄청 먹어요

수진 : (아련한) 상우랑 입맛도 비슷하네... 과일로 배 채우는 녀석이거든

초원 : 아저씨 사진 있어요? 진짜 내 코랑 입이랑 닮았는지 보고 싶어요

수진, 얼른 지갑을 꺼내 열지만 사진이 없다.

수진 : 항상 끼고 다녔는데... (핸드폰을 꺼내 보여주려다 급 생각난다)
컴퓨터로 보여줄게. 블로그에 사진 있거든

44. 거실 - 컴퓨터 책상 (낮. I)

머리를 맞대고 상우의 블로그를 보는 수진과 초원.

초원, 짱아를 안고 있다.

상우의 사진이 보인다.

초원 : 이렇게 생겼구나. 엄마가 잘 생겼다는데

수진 : (놀라) 엄마가 그런 소리를 했어?

초원 : 빛이 났됐어요.

수진 : (우호 웃으며) 빛까진 아닌데. 어릴 때 사진도 있어.

큰 개를 껴안고 있는 상우의 어린 시절, 사진이 보인다.

수진 : 어릴 때, 처음 키운 개래.

초원 : (한참, 사진을 들여다본다) ... 착한 사람 같아 보여요.

수진 : 착한 사람이야.

초원 : 나랑 닮았나? 좀, 닮은 것도 같고. 근데, 왜 블로그 이름이 뭉치의 친구예요?

수진 : 언니가 밴드를 하거든. 이름이 뭉치야. 그 사람은 그래서 뭉치 친구고
(그렇게 말하면서 가슴이 먹먹해 지는. 눈물이 뚝 떨어진다)

초원 : (살피며) 언니, 울어요?

수진 : ... 그 사람이 너무 보고 싶네

45. 놀이터 (낮. E)

초원, 짱아랑 놀이터에서 뛰논다.
그네에 앉아 그런 초원을 보는 수진.
초원, 수진의 그네 옆에 와 그네를 탄다.

수진 : 초원이는 학원 안 다녀?

초원 : 여기 저기 다녔는데, 재미없어 그만 뒀어요

수진 : 엄마가 뭐라 안 그래?

초원 : 굳이 제가 싫어하는 거 안 시키세요. 혼자하고 모르는 거 인터넷으로 찾고,
동영상으로 영어랑, 중국어도 배우고, 피아노도 동영상으로 공부해요.
그래도 잘해요. 일등이에요. 엄만, 엄마 닮아서 그렇다지만,
뭐 그다지 그런 것 같지 않고. 전, 혼자 그렇게 공부하는 게 맞는 거 같더라고요.
대신 책은 많이 읽으라고 하세요.

수진 : 엄마는 자주 늦으시니?

초원 : 뭐, 가끔. 근데 저한테 소홀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남자를 싫어해서,
남자 친구 애기나 그런 거 못 나눠서 그렇지 대체로 좋은 엄마예요

수진 : 남자 친구 있구나?

초원 : 남자 친구라기보다 좋아하는 애가 있는데,
겐 내가 자기 좋아하는 지도 몰라요.
그런 거 같이 나눌 사람이 엄마뿐인데,
엄만, 남자에겐 너무 비협조적이라, 심지어 저한테 결혼하지 말래요.
엄마처럼 기증 받아 애도 나올 수 있다고.

수진 : (할 말을 잃어버린. 안타깝다)
... 그래도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고, 아름다운 거야. 엄마한테 그
런 말 들어도, 넌 니 삶을 살아야 돼

초원 : 그런 것 쯤 알고 있어요.

엄만, 엄마 인생을 선택한 거고, 전 제 인생을 살 거니까요

수진 : (그런 초원이 기특해 웃는다)

46. 민주 집 앞 (낮. E)

수진이 차 안에서 초원 배웅을 한다.

초원 : 언니, 근데 언제 서울에 가요?

수진 : (생각해 본 적 없다. 곰곰 생각하고)

... 글썄... 지금 당장 갈 수도 있고, 더 있을 수도 있고

초원 : 더 있는 다는 거는, 저랑 또 만날 거라는 얘기에요?

수진 : 아마 그럴걸?

너 만날 일 아니면 여기 오지도 않았을 테니까. 왜? 더 있을까?

초원 : ... 상우 아저씨 얘기, 더 듣고 싶어요.

수진 : (눈물이 팡 돈다) ... 난, 얼마든지 더 있어도 돼

초원 : 그럼, 언니 내일도 보는 거예요. 엄마한테 비밀이지만

수진 : (웃어주며) 그래. 내일 보자

대문을 들어가는 초원.

그런 초원을 한참 보는 수진.

집으로 들어간 초원이 베란다 창으로 손을 흔든다.

웃어주는 수진.

47. 대청 호 - 댐 (저녁. E)

노을 지는 호수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수진. 쓸쓸해 보인다.

수진 : 비록, 당신이 원하는 것처럼 연구에 쓰이진 않았지만 예쁘고,
똑똑한 아이를 낳았어. 강한 일 한 거야 상우야.

48. 도토리 묵밥 집 (저녁. E)

민주, 묵밥을 앞에 놓고 영석과 통화 중이다.

영석 (E) : 그래서 뭘 어쩔 건 데?

뭘가 달라진다고 거기서 그러고 언제 까지 있을 거야?

수진 : ... 답답해 보이겠지만 그냥, 기다려줘.

서울에 있음 심란하기만 할 것 같고, 상우 애 보면서 더 있을 래

영석 (E) : 그게 왜 상우 애야? 정신 차려.

수진 : 여기 재밌어. 아침에 일어나 상당 산성 길 산책하고,

저녁엔 노을 지는 대청호 바라보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

... 나한테 필요한 시간인 것 같아. 더 있고 싶어

영석 (E) : 여행하면서 맘 정리 하는 건 좋은데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그 아이는?

괜히 잘 사는 애한테 혼란 주는 거는?

엄마 몰래 만나다 너 괜히 수상한 사람으로 몰린다. 너, 어떤 권리도 없어

수진 : 알아. 그냥, 그 아이한테 상우 이야기 하면서 내가 위로 받고, 정리가 돼... 이렇게
도 이별하는 구나. 그런 마음이야

영석 (E) : 너 좋아하고, 너 마음 편하자고,

아빠는 이런 사람이야 가르쳐 주고 가버리면 그 아이는 어찌라고

수진 : 그 아이도 자기가 누구 자식인지 알 권리가 있잖아.

상우 애기 듣는 거 좋아해. 더 알고 싶데

영석 (E) : (답답한) 휴... 뭘가 맞는 건지 모르겠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전화를 끊고 도토리 묵밥을 멍 바라보는 수진.

49. 민주 집 - 컴퓨터 책상 앞 (저녁. I)

부엌에선 민주가 저녁 준비하는 소리가 들리고, 초원, 컴퓨터 앞에 앉아 상우 블로그를
본다. 일기장 폴더를 열어 보는 초원. 꼼꼼히 들여다본다.

초원 : 이런 생각을 하고 살던 분이구나... (쓸쓸히) 진짜 내 아빠였다면 좋았겠다

민주(E) : (외친다) 초원아 밥 먹어

초원 : (얼른 즐겨찾기에 저장해 놓고 컴퓨터 창 닫고, 끈다) 어

50. 민주 집 - 부엌 (저녁. I)

식탁에 마주 앉아 식사 하는 모녀.

민주 : 오늘은 뭐 했어?

초원 : (뜨끔하고) ... 뭐, 똑같지. 숙제하고, 책 읽고, 컴퓨터 좀 하고.

민주 : (살피며) 어제, 그 여잔, 안 왔지?

초원 : (당황한) ... 어...

민주 : 그게 뭐니? 남의 집에 밤에 찾아 와 폭탄 투하 하고 가는 것도 아니고.
너도 신경 쓰지 마

초원 : 근데 엄마, 왜 그렇게 그 언니 싫어해?

민주 : 어머! 엄마가 그 여잘 싫어 할 이유가 뭐가 있어?
하도 기가 막히는 소리를 하니까 그렇지.
너랑, 기증자랑 무슨 상관이라고 니가 그 사람 딸인 것처럼 그러잖아. 기분 나쁘게

초원 : 그게 기분 나쁜 거야? 그냥, 궁금해서 왔다 잤아.
내가 딸이 아닌 것도 아니고

민주 : 너? 그런 생각 하는 거니? 니 아빠라고? 넌, 아무상관 없다니까.
엄마 혼자 나온 아이야 넌.

초원 : 그건 아니지. 세상에 어떻게 여자 혼자 아기를 만들어?

민주, 어이없어 가볍게 초원에게 눈을 흘긴다.

51. 초원 학교 앞 (낮. E)

친구들과 교문을 나서던 초원,

입구의 수진 차를 발견 하곤 친구들과 작별 인사하고 차로 쏘르르 달려온다. 친구들, 호기심에 보지만 곧, 저들끼리 떠들며 가고 초원, 조수석에 올라탄다.

52. 수진 차 (낮. I)

수진 : 친구들은 다 학원가면 놀 친구 없어 심심하지 않아?

초원 : 그냥, 책 보고, 음악 듣고, 그게 더 좋아요. 엄마는 성공하는 사람보다 좋은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크라고 말해요. 가끔, 이기적이고, 이해 안 될 때도 있지만 대체로 좋은 엄마 인 것 같아요. 그럴 땐

수진 : (웃어준다) 초원이는 좋은 엄마 뒀네...

(뭔가 생각한다) 아마 상우도 그렇게 키웠을 거야.

남한테 강요하는 거 되게 싫어했거든. 혼자 조용히 실천하는 사람 이었어. 누구도 옳지만은 않고, 누군가의 정의가 누군가의 아픔이 될 수 도 있다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자기 혼자 조용히 하는 사람이었어

초원 : ... 아저씨, 알았으면 꼭, 만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때, 수진의 차 앞을 가로지르는 하나.

초원, 하나를 발견 한다.

초원 : 언니, 재가 내가 좋아하는 애예요.

수진 : (급 호기심) 그래? 같이 만날래? 언니가 맛있는 거 사줄게

초원 : (풀죽어) ... 나, 하나랑 친한 거 아닌데. 내가 말 시키면 놀랄 텐데

수진 : (다짜고짜 차를 세우고 창문을 연다) 하나야.

하나, 돌아본다.

초원, 당황해 고개를 푹 숙이지만 수진이 초원의 옆구리를 찔러 일으키는데. 뼈죽거리며 고개를 들더니 열린 창으로 고개를 내미는 초원.

초원 : (긴장해 얼굴은 웃지만 쭈뼛거리며) 하나야, 같이 뭐 먹으러 갈래?
언니가 친구 지나간다니까, 맛있는 거 사 준대

53. 패스트푸드 점 (낮. I)

초원과 나란히 앉은 수진.
맞은편의 하나, 의젓하게 앉아 있는데.

수진 : 어서 먹어 하나야. 초원이 너도 먹고.
니가 안 먹으니까, 하나가 못 먹잖아

초원 : (자책한다) 이렇게 입 크게 벌리는 햄버거를 왜 먹으러 왔을까요?

수진, 피식 웃고 자기가 먼저 햄버거를 먹기 시작한다.
하나가 먹고, 그러자, 새침하게 입을 조금 벌려 햄버거를 먹기 시작하는 초원.

수진 : 친구랑 할 말 없어? 친구끼리 너무 어색하다

초원 : (뭘 말해야 할지 난감해 하기만 하고)

수진 : 초원이야 하나랑, 친해지고 싶다고 그랬거든. 초원이랑 친하게 지내.

하나 : (햄버거 씹으며) 우리 원래 친 한데요?
봄에 소풍 가서도 우리 둘이 김밥 먹었잖아.

초원 : (얼굴이 환해지며 함박웃음이 가득하다) 그랬지. 그랬구나.
우리 둘이서만 밥 먹은 적도 있구나.

그런 초원을 보며 덩달아 웃음 짓는 수진.

54. 수진 차 안 (낮. I)

앞 창으로 하나가 집에 들어가는 걸 보는 둘.

수진 : 사실, 나도 상우한테 먼저 고백 했거든. 뭐, 남자만 고백 하란 법 있나?
거절하면 쪽 좀 팔리고 말지 싶은 마음으로 고백 했는데
상우가 따뜻하게 안아 주더라. 거기에 혹, 갔지
... 내가 고백 했어도 내가 더 많은 사랑 받은 것 같아

55. 클럽 스테이지 (플래쉬 백. 밤. I)

클럽 공연 중.
수진, 온 힘을 다해 무대를 뜨겁게 달구며 락의 진수를 보여준다.

사람들, 무대 앞쪽에 튀어 나와 폴짝이며 락을 즐기고,
맨 앞, 수진 앞에서 폴짝이며 즐기는 상우와 영석이 보인다.
폴짝이는 상우의 모습이 무대에서 열창하는 수진의 눈에도 인상적으로 들어온다.

56. 클럽 출연자 대기실 (밤. I)

밴드 멤버들, 맥주와 간식을 먹으며 쉬는데,
속속 대기실로 들어 닥치는 골수팬들.
멤버들,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 훈훈한 모드다.
그 사이로 케익상자와 샴페인, 꽃다발을 든 상우와 영석의 모습이 보이는데.

상우 : (수줍게 들어오며) 일전에 러브 팻 콘서트에서 보고 공연 보러왔어요.
인사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멤버1 : (악수 청하며) 아이고. 감사합니다.

수진 : (멋지게 원 샷으로 맥주 캔을 비우고는)
스테이지 맨 앞에서 폴짝거리는 거 봤어요. 그 꽃다발은 제 건가요?

상우 : (수줍게 건 내며) 아... 네... 꽃다발은 숙녀분께

멤버2 : 많이 응원해 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상우 : 좋은 공연, 부탁드립니다. 사진 찍어도 될까요?

멤버3 : 그럼요. 여기로 오세요.

밴드와 사진에 찍히는 상우.
수진, 상우 옆에서 다정하게 허리에 손을 감싸고, 찍힌다. 스틸!!

57. 홍대 거리 (밤. E)

밴드들, 악기를 어깨에 메고 젊음이 넘실대는 홍대 밤거리를 누빈다.

멤버3 : 근데, 아까 그 사람, 꽃다발 들고 온 남자,
수진이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야? 드럼 치고 있음 스테이지 다 보이잖아.
수진이를 보는 눈이 여신 바라보듯 한다니까

수진 : (얼굴 발그레 지고)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괜히 김칫국 마시지 마라

멤버1 : 아니야, 남자는 남자가 알잖나.

우리 같이 자유로운 영혼은 저런 바른 생활 오빠 만나야 고생 안한다.

이, 오빠들 생계가 니 손에 달릴 수도 있다

멤버2 : (놀린다) 수진이도 싫지 않은 모양인데? 얼굴 빨개진 것 봐

수진 : (정색하며) 아니야. 그런 거

멤버1 : 자고로 사랑에 빠진 여자와 가난은 못 숨긴 다고 했다. 인정할 건 인정해라

수진을 놀리며 사이좋게 걸어가는 밴드.

수진, 그 상황이 싫지 않다.

58. 클럽 - 무대 (밤. I)

공연을 펼치는 뭉치.

수진, 노래를 부르면서도 클럽 문이 열리고 사람이 들어오는 모습을 주시한다. 무대 밋, 상우 안 보이고. 웬지, 수진, 기운이 없다.

그런 중, 출입문이 열리며 상우와 영석이 들어서는데.

상우를 발견하고 급, 얼굴이 환해지는 수진. 무대 위를 날라 다닌다.

59. 클럽 - 바 (밤. I)

무대 위에선 다른 밴드의 공연이 진행되고.

상우와 영석이 바에 앉아 맥주를 마시는데, 수진이 다가온다.

수진 : (영석에게) 저, 이 사람 좀 잠깐 빌려 주세요

영석, 병째 놀라 고개를 끄덕이고,

상우는 수진의 팔에 뉘여 출입 문 밖으로 끌려 나간다.

영석 : 상우, 저 녀석, 제대로 걸렸는데. 저거 저 품, 오늘 뉘일 품인데

60. 클럽 밖 구석 (밤. E)

떠들썩한 골목 한 가운데 자리한다.

수진 : (다짜고짜) 저, 좋아하죠?

상우 : (놀라) 네?

수진 : 단순히 팬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여자로 좋아하는 거예요?

상우 : (당황해 어쩔 줄을 몰라 한다)

수진 : 자꾸, 그쪽이 신경 쓰여 공연에 방해 되요.
오늘은 왔나, 안 왔나 신경 쓰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은 담판을 지으려고요.

상우 : 담판이요?

수진 : 이런 거 여자가 하게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그쪽보다 더 아쉬운 것 같아 먼저 하는 거예요

수진, 말해놓고 쑥스러워 셀쭉해 있고,
그런 수진을 보며 상우, 환하게 웃으며 수진을 덤석 따뜻하게 안아준다.

상우 : 고맙고 미안해요. 내 맘 알아줘서 고맙고, 먼저 고백하게 해서 미안하고.
나... 수진씨 많이 좋아해요. 처음 공연 본 그날 이후로 수진씨 잊을 수가 없었어요.

가만, 안겨 눈만 껌벅이는 수진.
빙그레 웃는다.

61. 상당산성 (낮. I)

수진과 초원, 산책을 하듯 상당산성 길을 따라 천천히 유랑한다.

초원 : 나, 아저씨 일기장 봤어요. 동물 사랑해서,
채식주의자면서 동물 데리고 실험해야 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아저씨. 그럼에도 인간
과 동물의 생명연장을 위해 실험을 한 아저씨가 불쌍해 보였어요.

수진 : 그래... 그런 사람이었어.

초원 : 언니 얘기도 있었어요. 언니는 고기를 좋아하는데,
언니가 먹는 고기는 안 불쌍하다고. 언니는 많이 먹고 노래 잘 불러야 한다고.
그래서 그 노래로 사람들에게 힘 줘야 한다고. 힘내야 한다고

수진 : (눈물을 뚝, 흘리는) 그래, 그런 사람이었어...

초원 : 언니, 저, 그거 보고 생각 한 게 있어요. 나, 아저씨한테 인사가고 싶어요.
내가 아저씨, 딸이라면, 인사 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수진 : (가만 초원을 기특한 얼굴로 보는)

62. 민주 집 - 거실 (저녁. I)

초원이 컴퓨터 책상 앞에 앉아 상우 블로그를 보고 있는데 민주가 들어온다.
얼른 블로그창을 닫는 초원.

민주 : 엄마 왔다

초원 : (현관으로 다가가) 다녀오셨어요?

민주 : 초원아, 내일 엄마랑 학교 가자. 저녁엔 맛있는 거 사먹고

초원 : 내일 당직이구나?

민주 : 어.

초원 : (좀 찢려하며) 근데, 나, 내일 대전으로 콘서트 보러 가고 싶은데.
희망 콘서트. 하나가 같이 가자는데, 하나 엄마도 같이 간데

민주 : (섬섬한) 그래? 꼭, 가고 싶어?

초원 : 비스트랑 아이유도 온데 나, 가고 싶어

민주 : 예휴, 엄마 혼자 심심하겠구나. 어쩔 수 없지.
하나 엄마, 핸드폰 번호나 주고 가. 나중에 인사라도 해야지. 근데, 하나가 누구지?

초원 : (당황한) ... 어... 있어. 우리 반에. 엄마, 모르는 애야

민주 : 딸, 크니까 재미없다. 동생 하나 더 나올까?

초원 : (못 말린단 얼굴이다) 아빠 없는 아기를 또 만든다고?
정, 그렇게 또 아기가 갖고 싶으면 입양하셔.
그 아긴, 어차피 엄마가 필요한 아기니까

갑자기 썰쭉해져 썩하니 자기 방으로 가는 초원.

민주 : 재가 요즘 왜 저래? 아빠 소리 전혀 안하던 애가.
그 여자 때문이야. 그 여자가 괜히 바람 잡어 놔서

63. 가로수길 - 수진 차 (낮. I)

가로수 길을 달리는 수진 차.
수진이 부르는 노래가 스피커에 뽕뽕 흘러나오고.
짱아를 안고 과자를 먹는 초원.

초원 : (과자를 수진 입에 넣어주며) 이게 언니가 부른 거라고요? 신기해요

수진 : 나도 신기해. 내 노래 들으면 이걸 내가 불렀나 싶다니까

초원 : 날씨도 좋고, 기분 너무 좋아요

64. 청주대 생명과학 연구소 - 실험실

민주, 실험동물들 케이지에 먹이를 주며 다닌다.
그때, 문이 열리며 기준이 일식 도시락을 들고 들어오는데

기준 : 심심해 죽을 거 같았지?

민주 : 심심은 니가 심심해서 찾아 온 거 같은데.
총각, 뭐냐? 주말에 데이트도 안 하고

기준 : 그래서 하러 왔잖아. (둘러보며) 초원이는?

민주 : 안 왔어. 대전에 친구랑 콘서트 보러 간대

기준 : 초원이도 이제 그 길을 밟는구나.
가족보다 친구가 더 좋아지는 때가 온 거지

민주 : 품 안의 자식이라고 점점 그녀석이 나 따돌리고 노네. 벌써 사춘긴가?
종일, 있었던 일, 얘기 하던 녀석이 말도 안 해주고

기준 : 정상적으로 크는 거거든요. 괜한 걱정 마세요.

민주 : 집에 가도 심심해.

기준 : 심심해 애라도 또 나올 기세다

민주 : 이미 그 생각든지 오래다.

그래서 초원이한테 동생 만들까 했더니 뭐라는지 알아?

아빠 없는 애 또 만들 거냐네... 정, 넣고 싶음 엄마가 필요한 아기 입양하란다.

기준 : 나쁘지 않네. 초원이가 현명하네. 선배도 이제 애 낳기엔 무리잖아

민주 : (확, 기분 나빠진다) 야!! 니가 뭘 안다고 그래? 나 아직 꼬떡없거든?

기준 : 그럼, 기증자로 나는 언제?

민주 : 넌 아니거든요

기준 : (발끈) 언제까지 내 맘 모른 척 할 건데? 선배도 나랑 있으면 편하고 좋잖아.

나도 선배하고 있을 때가 제일 좋아. 그러면 된 거 아니야? 뭐가 두려운데?

민주 : 일방적인 마음 강요하는 것도 폭행이다. 이제 그만 해라.

어린 애, 어리광 받아주는 것도 이제 지쳤다.

기준 : 어린애? 선배 눈엔 내가 어린애야?

민주 : (속상한) 나, 남자라면 지긋지긋 이를 가는 사람이야.

제 멋 대로에... 남자랑 잘 살 자신 없다

풀죽는 기준.

괜히 무안한 민주.

65. 납골당 (낮. I)

수진과 초원, 상우 자리 앞에 우두커니 서있다.

수진 : 상우야, 좀 이상하겠지만 이 아이, 니 아이야.

너도 모르게 만들어 졌지만. 너한테 인사하고 싶네

초원 : (어색하다) ... 안녕하세요?...

아빠란 단어는 써 본적이 없어 아빠란 말은 생략 할게요...
나한테도 아빠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고맙습니다...
내가 세상에 나오게 해 주시고... 너무 멋지게 살아 주셔서요...
살아계셨을 때 봤으면 좋았을 걸.

그런, 초원을 쓸쓸히 보는 수진.

66. 수진 집 (낮. I)

짱아, 신이 나서 온 집을 깡충거리며 뛰어다니고,
수진, 창이란 창을 열어 환기를 시킨다.
초원, 신기한 얼굴로 벽에 걸린 대형 웨딩사진을 본다.

수진 : (방으로 들어가며) 잠깐만. 언니, 짐 좀 싸게.
좀만 기다려, 밖에 나가 맛있는 거 먹자

웨딩사진에서 눈을 떼지 않는 초원.

초원 : 언니는 이제 다른 사람하고 결혼 안 할 거예요?

수진 : 뭐?

초원 : 계속 혼자 살 거예요?

수진 : ... 글썸 ...어떻게 될까? 사람 사는 건 아무도 몰라.
현재도 미래도 시크릿이잖아

초원 : 인생은 정말 비밀인가 봐요.
사진 속의 언니는 저렇게 행복하게 웃고 있는데,
지금 언니는 너무 슬퍼 보여요

수진 : ...

초원 : 언니, 아저씨 앨범 있어요?

(jump)

초원 : (상우, 앨범을 본다. 상우, 어릴 적 부모와 함께 찍은 사진이다)
아저씨, 엄마, 아빠 세요?

수진 : (다가와 보며) 어. 그러고 보니 초원이야 할머니도 닮은 것 같다.

초원 : (신기해 바라보며 조용히 불러본다) ... 할머니... 처음 불러 봐요

수진 : (짙해 바라보고) ...

초원 : 외할머니, 할아버지도 엄마, 처녀 때 두 분 다 돌아 가셨데요.

이모는 호주에 이민 가서 한번 봤고

그래서 엄마도 일찍 결혼 했는데, 두 번이나 이혼했고...

엄마, 인생도 가만 보면 참, 불쌍해요...

나만큼이나 ... 외로운 사람이에요

67. 분식 집 (낮. I)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는 민주.

주인, 순대와 오뎅을 들고 와 맞은편에 앉는다.

주인 : 초원이는?

민주 : 대전에 콘서트 갔어요

주인 : 그 집에 온 손님하고?

민주 : 네?

주인 : 왜, 머리 짧아서 남자 같은 아가씨.

요즘 맨날, 초원이랑 붙어 다녀 뺐더라

민주 : (수진임을 안다. 어처구니가 없다)

초원이가 그 아가씨랑 같이 다닌다고요?

주인 : 그래. 얼마 전엔 초원이를 졸졸 쫓아 다녀 내가 유괴범인줄 알고

붙들어 맨 적도 있는데, 집에 온 손님 아니야?

집에도 들락거리던데... (의아해 살피며) 몰랐어?

민주, 아찔하고, 주인, 민주에 반응에 눈치만 살핀다.

68. 민주 집 골목 앞 (밤. E)

집에서 좀 떨어져 내리는 초원.
수진도 같이 내린다.

수진 : 그래도 난, 거짓말 하고 온 거 맘에 걸린다.
지금이라도 내가 같이 가서 말하는 게 맞는 거 같아

초원 : 내가 언니 번호, 하나 엄마번호라고 알려 줬는데 전화도 안 오잖아요.
우리 엄마가 날 좀 믿거든요

수진 : 엄마가 초원이를 믿으니까 더욱 그러면 안 돼지.
이건 아니다. 초원아. 언니가 잘못 한 것 같아

초원 : 우리 엄마를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언니, 다시는 못 보 게 할 거라고요.
안 그래도 언니, 찾아 왔었냐고 맨 날 묻는데.
경찰에 신고 할 지도 몰라요.

수진 : ... 그래도 이건 아닌데. 혼나도 언니가 혼날 테니까 같이 가.
나, 상우 아이가 잘 못 자라는 거 싫어.
애한테 거짓말 하게 했다고 무지 화내고 있을 거야

초원 : (폴죽어) 이번엔 그냥 넘어가 주면 안돼요? 엄마, 많이 화내실 텐데.. 네?

69. 민주 집 앞 (밤)

초원, 수진, 긴장해 대문 앞에 서 있다.
민주가 잔뜩 성난 얼굴로 대문을 열어준다.

민주 : (수진 쏘아보며) 이게 지금 뭐하고 다니는 거예요?

초원 : (안절부절) 엄마, 그런 게 아니라

민주 : 넌, 입 다물고 가만있어.

수진 :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초원이에게 거짓말을 하게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민주 : 이렇게 며칠 동안 깜짝 같이,
날 이렇게 한심한 엄마로 만들려고 한 거였어요?

안 그래도 매일, 혼자 지내게 하는 아이한테 가뜰이나 미안한데,
니가 얼마나 무심한 엄만지 초원에게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수진 :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전, 그제, 초원을 알고 싶었고, 초원한테 아빠를 알려주고 싶었고,
(목소리에 점점 힘이 없다) 초원이라 상우를 느끼고 나누고 싶었고...

민주 :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 하세요?
초원이야 당신, 죽은 약혼자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영망진창으로 만들어 봐요.
왜요, 아주 막장 드라마처럼 그 사람 집에 알려 당신 손녀 여기 있습니다. 알리기라도 할
건가요?

수진 : (병쩍) 그런 억지가 어딴어요. 그럴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민주 : 내가 초원을 혼자 어떻게 키웠는지 상상이나 되세요?
어디서 초원을 공유 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나서길

수진 : ...

민주 : 다시는 초원이 곁에 얼씬도 못할 줄 아세요.
내가 직장을 옮기고, 이사를 가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 초원이 못 봐요.

초원을 끌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민주.

70. 민주 집 - 거실 (밤. I)

민주, 가차 없이 초원이 종아리를 치고 있다.
초원도 소리 없이 맞고 있고.

민주 : 엄마가 그렇게 우습니?
엄마가 잘 넘어가니까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 여자 만나고 엄마 보기 미안하지 않았어?
... 엄마가 몇 번이나 물어 봤는데
... 기회가 그렇게 많았는데 이렇게 들통 나니까 억울해?
그렇게 감싸주고 싶었는데?

초원 : 아니야 엄마, 그런 게 아니야. 엄마한테 미안했어.
근데... 나도 아빠 궁금했어.

나도 아빠가 있다는 게 신기했고, 아빠한테 인사도 하고 싶었어

민주 : 누가 아빠야? 너한테 아빠가 어딴데? 엄마 혼자, 너 나은 거야.
엄마가 잘 키우려고. 엄마 딸이 너무 보고 싶어서

초원 : 나도 아빠가 필요하다거나 그런 거 없었는데,
그래도 알 게 됐는데, 알수록 궁금한데, 그게 그렇게 잘못 한 거야?

민주 : 이제 까지 엄마랑 둘이 잘 살아 왔잖아.
왜 갑자기 나타난 저 여자 때문에 안하던 거짓말 까지 하고, 엄마 속이고,
그 여자 핸드폰 번호로 주고 가면,
그 여자한테 하나 엄마 노릇하라고 하려 그랬니? 왜? 왜 이렇게 엉망이 됐는데?

초원 : 엄만, 어쨌든 내가 아빠가 필요할 거란 생각 안 해봤어?
나도 엄마 말고 가족도 있고 싶고 명절에 친척들도 만나고 싶어.

민주 : (놀라 멈칫 하고)

초원 : 엄마가 만나게만 해주면 안속이잖아.
언니도 아저씨 보내고 힘들어 이러는 건데 좀 봐주면 안 돼?

민주 : 이게 뭘 잘했다고 꼬박꼬박 말대꾸야. (더 세게 계속 내리친다)

71. 민주 집 앞 (밤. E)

수진, 베란다 창으로 초원이 맞는 모습을 발을 동동 거리며 본다.
초원이 급기야 엉엉 울음을 터트리고,
수진, 맘이 너무 아파 차마 못 보고 돌아선다.

72. 고속도로 - 수진 차 (밤.I)

고속도로를 달리는.

수진 (E) : 내 욕심 때문에 애한테 상처만 줬어. 미안해 상우야. 다 미안해

눈물을 뚝뚝 떨구며 내 달리는.

73. 초원 학교 앞 (아침. E)

민주 차 앞. 민주가 차를 세워 놓고 운전석에서 초원을 배웅한다.

민주 : 학교 끝나고 바로 집에 와.

엄마가 전화 할 때 집에 없어봐.

초원 : (풀죽어) 다녀오겠습니다.

그런, 초원의 뒷모습을 보는 민주, 마음이 안 좋다.

초원, 교문을 들어서는데 그때, 하나가 초원을 발견 하곤, 초원 곁으로 다가선다.

하나 : 초원아

초원 : (돌아보면 하나다. 웃어 주지만 그 모습이 쓸쓸하다) 하나야

하나 : 너 많이 혼났어?

초원 : (놀라) 어? 어떻게 알았어?

하나 : 토요일에 집으로 니네 엄마한테 전화 왔었어. 나랑 콘서트 갔냐고.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전화 했다는데

나도 무슨 소린지 했는데, 니가 그 누나랑 갔을 것 같더라고

초원 : (시무룩) ... 그랬었구나. 니네 엄마, 나 나쁜 친구지 알겠냐.

하나 : 그 누나... 언니 아니지? 거짓말 하고 간 거면

초원 : ...

하나 : 근데, 너 나 좋아하니?

초원 : (얼굴 빨개져)... 뭐?... 그게... 무슨

하나 : 그 누나가 너 화장실 갔을 때 그러더라.

초원 : (낭패다. 입술을 지그시 깨무는)

하나 : 근데, 초원아. 나도 너 좋아해. 그 말 듣고 기분 되게 좋았어

초원, 수줍지만 환한 웃음을 짓고, 하나, 초원을 보며 방긋 웃어준다.

그런 초원의 모습을 눈에 담는 민주.

74. 청주 대학교 교정 (낮. E)

민주, 교내 벤치에 멍하니 앉아 떨어지는 낙엽을 본다.

기준, 커피를 양 손에 들고 와 하나를 민주에게 불쑥, 건 내는데.

기준 : 한 참 찾았잖아. 뭐야, 혼자 분위기 잡고 있었어?

민주 : (쓸쓸히) 이젠, 가을도 끝이다.

기준 : 뭐, 생각이 그리 많으셔?

민주 : 그러게... 생각이 많네.

기준 : 생각이 많으시겠지. 이렇게 멋진 남자를 뺨, 찔으니.

내가 과연 잘 한 건가하고

민주 : 그러게... 조금 아쉽네... (기준 보고 쓸쓸히 웃어주는)

기준 : 내 결혼식 때 울지 마라. 비겁하게

민주, 가만 기준의 머리를 부여 준다.

75. 밴드 연습실 (낮. I)

밴드들, 보컬 없이 악기 연습중이다.

수진이 연습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밴드들, 반갑게 수진을 반겨준다.

밴드1 : 여~ 돌아온 디바. 여행은 잘 갔다 왔냐?

수진 : 덕분에. 고마웠어.

밴드2 : 여기까지 온 거면 이제 다 정리 된 거지?

수진 : 응... 미안. 그동안, 제대로 연습도 못하고.

페스티벌 준비 때문에 바빴을 텐데, 이제까지 헐랭이 노릇한 거 다 채울게.

뽕세게 굴러

밴드3 : 노래를 부르면 힘나는 수진이지.
다시 잘 해 낼 거야

수진 : 응. (스스로 다짐한다) 잘 할 거야

76. 수진 집 (밤. I)

현관문이 열리며 수진이 지쳐서 집으로 들어온다.
짱아가 꼬리를 흔들며 반갑게 맞아 주지만 짱아를 어르는 손엔 힘이 없다.

수진 : (손에 들린 핸드폰 보면 걸고 싶다)
초원인 어떻게 지내나?
그래도 내가 걸면 안 되겠지?
아니야. 안부만 물어보는 건데
(결국 초원의 번호를 찾는. 떨리는 마음으로 걸어본다.
하지만 없는 번호라는 메시지만 들려오고. 한숨 쉰다.)
그럼, 그렇지. 번호를 쉼 먼저 바꿨겠지
(집을 둘러보며) 이 집도 나가야 하는데. 집도 알아봐야 되고 할 일 많구나

그때, 걸려오는 전화. 어머니다.

수진 : (한참을 망설이며 발신 번호를 본다) 네. 어머니, 안녕하셨어요?

상우 모(E) : (안쓰럽다) 그렇지 뭐. 넌, 어머니?

수진 : 죄송해요. 연락도 못 드리고, 찾아뵙지도 못하고

상우 모(E) : 영석이한테 너 여행 떠났다는 얘기 들었어. 잘 했다.

수진 : (따뜻한 목소리에 울컥하고) ...

상우 모(E) : 아픈 텐 없지? 아무쪼록 니 건강 잘 챙겨라. 잘 먹고

수진 : 아버님도 무고 하시죠?
일간에 찾아뵙게요. 의논 드릴일도 있고

상우 모(E) : 안 그래도 내, 그래서 연락 했다.
행여, 니가 걱정 할 까봐 그러는데, 그 집, 니가 살아줘.

수진 : (놀라) 네?

상우 모(E) : 니가 정, 싫다면 어쩔 수 없지만 상우 아버지랑 나는 니가 그냥, 살아줬으면 한다.

거기서 상우 많이 기억해 주고, 우리가 터무니없이 욕심 부리는 것 같아 미안하지만 그냥, 받아줘.

수진 : ... 어머니

상우 모(E) : 얼른 맘, 정리하고 니 삶을 살라고 못해 줘 미안하구나

77. 골목 (낮. E)

초원, 혼자 터벅터벅 집으로 하교 하는 길.

더럽고 흘쭉한 강아지 한 마리가 초원 뒤를 졸졸 따른다.

초원 : (돌아보며) 너, 집 없는 강아지구나. 불쌍한 것

초원, 가만 강아지를 쓰다듬는데 강아지도 가만 불쌍한 눈으로 초원을 본다.

초원, 마음이 안 좋다.

초원 : 우리 집 갈래?

엄마 때문에 키우진 못해도 니가 오면 밥은 줄 수 있어.

초원, 집으로 향해 걸어가며 뒤를 흘긋 돌아보면,

강아지가 말을 알아들었는지 쫄쫄거리며 초원의 뒤를 쫓는다.

초원 : (기분 좋아) 나도 어쩔 수 없는 상우 아저씨 딸 인가 보다.

강아지 머리를 쓰다듬는 초원.

78. 클럽 공연 (밤. I)

무대에서 노래하는 수진.

방방 뛰는 사운드지만 가사의 아픔이 목소리로 절절히 느껴진다.

79. 홍대 골목 - 클럽 계단 (밤. E)

밴드들 계단에 하릴없이 쪼르륵 앉아 담배를 피며 별보기를 한다.

수진 : 나도 한 대만 주라

밴드1 : 뭐야? 짧은 지가 언젠데 다시 피려고 그러냐? 피지 마

밴드2 : (담배 한가치 꺼내 수진에게 건 내며) 그냥, 암말 말고 줘라.
그딴 거, 별로 위로 안 된다. (불도 부쳐주고)

수진 : (맛있게 담배를 길게 들이마신다.)
맛있다. 그렇게들 맛있게 피니까 내가 피고 싶지 않겠어?

밴드1 : 뭐 거창하게 들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지만, 넌, 애기 낳 몸이다.
그것만은 명심해라

수진 : 애기는 무슨

밴드3 : 근데, 너 이젠 그 집 나와야 되냐? 차도 상우 차고.
여자랑 같이 살다 헤어질 때 그게 켈 골치 아픈데,
한명이 없어지면 그건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밴드2 : (수진 눈치 보며) 지금 그럴 정신이냐? 애가? 천천히 해.
그거 서두르는 집안이라면 애초에 시집 안 간 게 잘 한 거다

수진 : ... 어머니가 그냥 살래.

밴드3 : 우와. 대박. 수진이 너 완전 게 났는데!!

수진 : ... 근데, 그냥 살아도 되는 건가?
지금 마음은 상우랑 지내던 데 있을 수 있어서 좋지만 그래도 되는 거야?

밴드1 : 살라는데 살지 뭐.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다 줄만 하니까 주시는 거지

밴드3 : 근데, 너 그거 잘 생각해라.
그러다 발목 잡힌다. 니 인생이 어떻게 풀릴 줄 알고?
거기서 평생, 상우 귀신하고 살 거 아니면 적당할 때 나오는 게 맞는 거 같다.
서로 섭섭하겠지만 오히려 더 힘들어 질걸?

밴드2 : 이럴 때, 딱, 애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해결 되는데.

넌, 우리 밴드 필수 혼수품도 안 만들었냐?
결혼 안 한 준혁이 빼고 다 혼수 했잖아,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다들 결혼 승낙 받긴 했지만.
누가 우리 같은 인디 밴드하고 결혼 승낙해주냐

밴드1 : 상우가 기막히게 피임 잘 했나보지.
원래 상우 같이 생긴 애들이 부뚜막 고양이잖아

그들의 소린 뒷전으로 담배 연기와 함께 길게 숨을 내 뱉는 수진.

80. 수진 차 (낮. I)

수진, 조수석의 장 봐온 짐을 들려하면 좌석 깊숙이 뭔가가 삐죽 보인다.
꺼내보면 초원의 핀이다. 가만 집어 드는

수진 : (쓸쓸히) 초원이 핀이네.

81. 수진 집 (낮. I)

수진, 태블릿 pc로 상우 블로그를 본다.

수진 : 그래도 여기 오면 니가 있지. 이, 나쁜 상우야

그런데 보면 쪽지가 5통이 와있다.

수진 : 무슨 쪽지지? 예전에 있던 건가?

쪽지를 열어보는. 초원이 보낸 쪽지다.
얼굴이 환해지는 수진.

82. 민주 집 - 컴퓨터 책상 앞 (낮. I)

초원 (E) : (주위를 살피며 자판을 두드린다)
언니, 잘 지내요? 그날 많이 놀랐죠?
엄마가 핸드폰 부서버리고 다른 번호로 새로 만들어
언니와 연락할 방법이 없었는데 블로그 생각이 났어요.
이젠 인터넷도 엄마 있을 때만 할 수 있어 엄마 샤워 하는 동안 들어 온 거예요. 하지만
잘 지내요. 걱정 안 해도 되요.
가끔 블로그에 미니 편지 보낼게요. 언니도 잘 지내요

(# 81과 교차 편집)

수진, 초원의 마음 씀이 기특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83. 초등학교 - 교문 앞 (아침. E)

하나가 교문 앞에서 누군갈 기다린다.

초원이 다가오면 하나와 서로 방긋 웃으며 인사하고 나란히 도란거리며
교문을 지나 운동장을 가로 지른다.

초원 (E) : 언니, 저 하나한테 고백 받았어요. 뭐,
사실은 내가 먼저 한 거지만 언니 말대로 누가 먼저 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가 잘 해줘서 기분도 좋고, 학교 가는 것도 신나고 그래요.
하나랑 자꾸 같이 있고 싶어 좀, 걱정이예요.
이래서 결혼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언니 요즘 여기 안 들어와요? 언니가 답장 주면 좋겠어요.

(# 81과 교차 편집)

수진 : (자신이 한심하다) 나아말로 왜 이 생각을 못했지? 초원이 많이 기다렸겠다
(자판을 두드리는데)

84. 초원 집 앞 (낮. E)

초원, 소세지 먹는 뽕치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다.

초원 (E) : 언니, 요즘 내가 돌보는 뽕치예요. 언니 밴드 이름 따왔어요.
길에서 돌아다니던 앤데, 내가 밥 주기 시작하니까 집 앞에서 나 기다려요. 엄마한테 제
발 들키지 말아야 하는데,
다행히 학교 끝나는 시간에 와서 대문 앞에서 밥 달라 기다려요.
데리고 키우고 싶은데,
그래도 이 녀석, 내 맘을 아는지 밥만 먹고 사라졌다가 신기하게도 나타나요. 뽕치가 어
느 날 안보이게 되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이제 날도 추워지는데.
내 피에 동물을 사랑하는 피가 흐른다고 생각하니
이젠 동물을 상우아저씨의 눈으로 보게 되요.
엄마한테 비밀이 또 생겨 버렸지만

85. 수진 집 (낮. I)

수진, 대 청소를 한다.

창이란 창을 다 열고 먼지 털이로 살살이 먼지를 털어내며 벽에 걸린 대형 웨딩 액자의 먼지를 털며 가만 상우를 바라본다.

수진 : 살아간다는 건, 깨끗이 청소도 해야 하더라. 상우야... 니 49제야.
니가 오늘 49일이 돼서 진짜 저 세상으로 간다면 내가 보내줘야 맞는 거지?
있는 숨씨, 없는 숨씨 부려 니 배웅 할 거다. 잘 가라, 이 상우

86. 수진 집 - 부엌 (저녁. I)

온갖 요리를 한다 잔뜩 일을 벌여 둔 부엌.

요리책과 다듬은 재료들로 정신없다.

요리책을 꼼꼼 들여 보며 양념을 하던 수진, 갑자기 욕지기를 하더니
가슴을 두드리며 화장실로 향한다.

수진 : 자꾸 왜 이러지? 이제 곧, 오실 텐데

87. 민주 집 - 컴퓨터 책상 앞 (저녁. I)

요리를 하다 말고 나온 듯, 앞치마를 두른 민주, 컴퓨터를 뒤적인다.

민주 : (즐거찾기를 뒤적이며 뭔가를 찾는다) 즐겨찾기에 저장해 뒀는데..
(쭉 보며) 이건 가? (클릭해 보면 아니다)
요리 이름을 써 두던지 해야지. 맨 날 헛갈려
(그러다 클릭해 들어가면 상우 블로그다.
이건 가... 하고 보면 블로그 입구에 상우가 동물들과 찍은 사진이 보이고.
눈에 익은 듯, 가만 보면 상우다.
허걱, 놀라는. 가만 목록들을 들여다보면
초원의의 닉네임, 청주공주로 들어온 흔적이 있다.
폴더를 열어 청주공주가 남긴 댓글을 보는데,
얼굴이 굳어지는)

<초원 (V) - 아저씨를 알게 돼서 기쁘고, 고맙고, 감사해요.
나도 아저씨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

88. 수진 집 - 거실 (저녁. I)

한상에 둘러 식사를 하는 수진과 상우 부모, 영석.

상우 모 : 그래, 수진아 준비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니?

(차려놓은 채식 음식 보며)

죄다 상우가 좋아하던, 음식들만 차렸구나. 고맙다.

수진 : (몸이 불편해 보인다)

제가 고기 좋아한다고 채식만 하는 상우 배려도 안 해주고,

고기 안 먹는다고 놀리기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미안하게

상우 모 : 우리도 그래.

그 녀석 뻔히 고기 안 먹는 거 아는데 한 밥상에 고기 올려놓고

전혀 미안해하지도 않았어.

영석 : 그녀석이 어이없어 웃고 있겠어요.

자기 앞에서 태연하게 족발 뜯던 사람들이 자기 죽고 모여 풀만 먹고 있고

모처럼, 다들 웃는.

그때, 수진, 손바닥으로 입을 막고 가슴을 치며 자리에서 일어난다.

수진 : 죄송합니다.

쫓르륵 화장실로 달려가는데.

영석 : 왜 저러지? 요즘 몸이 안 좋다고 하긴 했는데

상우 모 : (뭔가, 직감 적으로 스친다)

그래? 몸살기 있다던가 그랬니?

상우 부 : 에이, 괜히 쓸데없는 생각 말라니까 또 그러네

상우 모 : 그 꿈, 진짜 태몽이라니까요

영석 : 태몽이요?

상우 모 : 그래. 내가 숲길을 걷고 있는데

여우가 갑자기 튀어 나와 내 앞에서 팔짝 거리면서 뛰노는 게 그렇게 예쁜 거야. 그러더

니 내 품안으로 사뿐히 뛰어들어 내 얼굴을 개처럼, 핥아주고 그러는 거야. 얼마나 기분
이 좋던지, 일어나기가 싫었다니까.

이 상황에 상우 아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상우 부 : (끌끌 혀 차며) 저~ 저.. 쓸데없이. 애가 생겼대도 걱정인 판에

상우 모 : 당신도 손주, 손주, 애들 우리가 키운다고
많이만 낳으라고 등 떠밀던 양반이면서 무슨 체면 차린다고

상우 부 : 시끄러. 다 끝난 얘기를
(쓸쓸히) 여기까지가 우리 복인 거야

다시 자리로 돌아오던 수진, 벽 뒤에서 그런 푸념을 듣고 만다.

89. 수진 집 - 부엌 (밤. I)

영석이 설거지를 하고,
수진은 식탁에서 태블릿 pc로 상우 블로그에 들어가 초원에게 쪽지를 보낸다.

수진 : 영석아, 상우 딸이 쓴 글 볼래?

영석 : (돌아보며) 뭐? 상우 딸? 넌, 그 소리가 그렇게 쉽게 나오냐?

수진 : 상우 딸을 상우 딸이라고 부르지

영석 : 너, 그 애 엄마 몰래 그 애하고 연락하는 거야? 어찌려고 그래?

수진 : 뭘 어찌려고 그래? 오바 하지 마셔. 그냥, 쪽지 주고받는 거야.
나도 상우 아이 어떻게 크는지 알고 싶고,
아빠는 아니지만 엄마가 아닌 어른의 역할을 해 주고 싶어. 균형 잡힌, 발란스

영석 : 너, 그 엄마가 애 혼자 키워내느라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 안 되지?

수진 : 뭐?

영석 : 내가 흘 엄마 밑에서 어릴 때부터 커 온 바로는 그거, 그냥 눈물이다. 눈물이 날
키운 거야. 그 엄마 때문이라도 그냥, 맘 편하게 해줘

수진 : ... 그 애가, 나한테 먼저 손 내밀었어.
자기도 엄마가 아닌 가족도 있다는 걸 알고 얼마나 좋아했는데
(생각이 많다) 그래서 말인데, 어머님한테 죄스러워.

엄연히 당신 손녀가 있는데, 저렇게 아쉬워하시는데

영석 : 애, 큰일 날 소리 하네. 너, 말하려고? 미쳤구나.
그 엄마가 왜 그랬는지 알겠다

수진 : 그게, 그렇잖아. 초원이 친척 하나 없어. 하나 있는 이모는 호주에 있다고.
초원이가 묻더라. 상우 아저씨 부모님은 어떤 분이냐고

영석 : 일 크게 만들지 마.
그 엄마가 길길이 날 뛰는 마당에 너, 그럴 권리 하나 없다.
너, 진짜, 상우 아기, 임신이라면 당연히 낳겠다

수진 : 세상에 그런 축복이 어딴어. 당연하지.
너, 설마, 그걸 생각이라고 하는 거야?

영석 : 그게, 당연한 게 아니지.
다른 케이스지만 니 말 따라 청주의 그 애, 아빠 없어 아빠 역할 해주고 싶다며. 니가 애
길, 나아도 마찬가지로 상황인거야. 그 애한테 아빠는 없어.
그리고 막말로 결혼도 안 했는데, 넌, 호적도 깨끗한 처년데,
그런 문제가 쉽게 감상적으로 결정 되냐?

수진 : 야!! 넌, 상우 가장 친한 친구라며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
상우가 버려진 강아지 목숨 하나 구하겠다고 그렇게 뛰어들었는데...
그 생명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데

영석 : 막말로 니 아기가 커서 '왜 날 아빠 없는 아이로 태어나게 했어요'
라고 힘들어 하면 어떡할래?
니 인생만 생각하지 말고 니 아기 인생도 생각하라고

수진 : ...

90. 청주대 생명공학 연구실 (낮. I)

새로 들어온 실험동물들을 깨끗한 케이지에 넣는 작업을 하는 기준.

기준 : 모두들 웰컴이야. 끝까지 모든 생명을 위해 잘 살아주길 바래

민주, 인터넷으로 상우 블로그를 보며 초원이 수진에게 보낸 쪽지를 보고 있다.

기준 : (다가와 흘긋 거리며) 요즘 맨 날 뭘 그렇게 보는 거야. 혼자 멍 때리고
(그러다 상우 블로그를 보며 반갑게 알은 체를 한다)
어! 이거, 몽치의 친구네. 선배도 이 블로그 들어가?

민주 : ...

기준 : 근데 요즘 새 글이 안 올라오더라고.

민주 : ... 여기 알아?

기준 : 나도 검색하다 우연히 들어 간 텐데, 동물 아플 때 응급 처치법도 있고, 동물들의
감정, 동물과 말하기 등등 있어 그런 거 때문에 꽤 인기 블로그야.

아무래도 이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같아.

동물 실험이나 유기동물 그런 것에 대해 생각이 많더라고.

한 해, 우리나라 의약, 화장품 실험으로 희생된 동물들이 기록된 것만
151만 마리라고 속상해 하던 글에 나도 속상했지 뭐

민주 : ... 초원이 아빠야.

기준 : 뭐?

민주 : 그 사람, 초원이 생물학적 아빠라고.
얼마 전 유기견 구하고는 교통사고로 죽은

기준 : (허걱, 질린다.)

민주 : 초원이가 여기서 아빠를 만나고 있어
... 난, 나만 잘해 주면 된다고 너무 쉽게 생각했는데...
혼자서도 부모 역할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91. 청주읍성

초원과 민주가 배낭을 메고 등산복 차림으로 청주 읍성 길을 걷는다.

민주 : 초원아, 너... 아빠가 필요하니?

초원 : (폴죽어 시니컬하게)
아빠가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고 할 존재는 아니잖아

민주 : (조심스럽게) 엄마가 한 선택에... 힘들어?

초원 : ... 그런 건, 아니지만... (역시 조심스럽다)

엄마한테 옆에 함께 있을 수 있는 숨 쉬는 인형이 필요 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어떻게 태어났건 나도 사람인데

민주 : (충격이다)

초원 : 나도 명절엔 할머니 댁도 가고,
휴일엔 귀찮아하는 아빠, 억지로 끌고 놀이동산도 가고,
동생이랑 먹을 것 때문에 싸우고, 그런 거 하고 싶어.
(울먹인다) 엄마, 너무 좋고, 엄마, 너무 사랑하지만
... 나한테 필요한 건 엄마만이 아니야.

민주 : (왈칵, 눈물을 쏟는. 차마 초원을 보지 못하고 먼저 씩씩하게 걸어 나간다)

92. 산부인과 병원 입구 (낮.E)

입구 문을 나서는 수진.
무작정 뿌듯하고 가슴이 벅찬 마음을 숨길 수 없다.

93. 수진 집 (낮. I)

수진, 싱글 벙글한 모습으로 배를 어루만지며 초원에게 쪽지를 보낸다.

수진 (E) : 초원아. 이 소식을 너한테 어떻게 알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너도 기뻐해 줄 거
라 생각해. 어딘가, 나와 같은 피가 흐르는 누군가가 존재 한다는 건, 무작정 든든한 일이
거든. 상우 아저씨가 언니한테 큰 선물을 남겨 줬어.

언니 뱃속에 니 동생이 있어.

언니는 튼튼하게 씩씩하게 좋은 엄마가 될 준비를 할 거야.

이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제일 먼저 알린다.

94. 연구실 (낮. I)

기준, 흰둥이에게 사료를 넣어 준다.

기준 : 이그, 불쌍한 것. 너도 마음껏 뛰 놀고,
암쥐하고 사랑도 하고 그랬어야 하는데.
독거 노위로 이렇게 혼자 지내게 해서 미안해.

니가 워낙 특출한 애라, 니가 인류를 위해 필요한데...
미안하다. 이진 못 할 짓인데

민주 : (여전히 현미경을 들여다보며) 흰둥이 운명이다.

기준 : 냉혈인간.

그렇게 따지면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리수를 둔 건 선배거든

민주 : (현미경에서 눈 떼고) 뭐?

기준 : 그렇잖아. 두 번의 결혼과 두 번의 낙태와 두 번의 이혼.
초원이는 그런 선배의 운명을 거슬러 나온 생명인 거지

민주 : (확, 분노한다) 야! 너, 너무 농담이 심하잖아

기준 : 그러니까 운명이 어딤냐. 다, 상황에 맞춰 사는 거지

민주 : 상황? 상황 뭐

기준 : 본능이지. 초원이한테. 그냥, 아빠를 알아가는 과정 정도는 허락해줘.

민주 : 아무 상관없는 없는데, 왜 그래야만 하는데?
초원이가 얼마나 혼란스러워 하겠어?

기준 : 초원이는 애초부터 혼란스러웠어.

무슨 엄마가 아기 때부터 넌, 내가 필요로 해서 모르는 남자 정자로 널 낳은 거야. 주입
하는 게 그게 정상이야?

엄만, 두 번 이혼하고 남자가 귀찮아 너한테 아빠는 없단다.
참, 펍도 애한테 바람직하겠다.

민주, 기준을 썰려보지만 맞는 말에 힘이 쏙, 빠진다.

96. 민주 집 앞 (저녁. E)

몽치가 대문 앞에 코를 빼고 뭔가를 기다리면, 초원이 헐레 벌떡, 대문을 연다.

초원 : (대문 열며 반갑게) 몽치야~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그때, 골목을 들어 와 파킹 되어지는 민주 차.

민주를 발견하고 놀란 초원.

손에 들린 소시지와 맛살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바닥에 떨어진 소시지를 맛있게 먹는 뭉치.

민주 : (차에서 내리며 사태가 짐작이 간다) 너, 지금 뭐하는 거니?

초원 : (두렵다. 더듬더듬) 불쌍하잖아. 그냥, 먹을 것만 준 거야

민주 : 아휴 ~ 널 어찌니?

초원 : (눈치 보며) 화났어?

민주 : ... 화난 거 아니야. 그래도 너, 동물 털 알려지 있잖아

초원 : 이 개 키우면 안 돼? 마당에서

민주 : 왜, 안 하던 짓 해. 그건 예전에 끝난 얘기잖아

초원 : 엄만, 내가 엄마 없을 때, 하루 종일 뭐하는지 모르지

민주 : 애가 왜 이래?

초원 : 저 개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고, 나도 생명이 있는 따뜻한 뭔가가 필요한데

민주 : (어처구니가 없다) 생명이 있는 따뜻한 뭔가?

초원 : 엄마도 생명이 있는 따뜻한 뭔가와 함께 하고 싶어 나 낳은 거 아니야?

민주 : (할 말이 없다)

초원 : 상우 아저씨가 그랬어.

인간이든 동물이든 따뜻한 생명을 보살피는 게 사는 이유라고.

뭉치가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다 먹고 불쌍한 눈으로 초원과 민주를 바라본다.

초원 : (조른다) 좀, 있음 겨울도 오는데, 집도 없어 얼어 죽을 거라고

97. 민주 집 - 욕실 (밤. I)

두 팔을 걷어 부치고 뭉치를 목욕시키는 초원과 민주.

초원 : (비누 거품으로 털을 문지르며)

이제 뭉치, 추위도 따뜻하게 잘 수 있는 집도 생기고, 맛있는 사료도 먹을 거야. 뭉치야 꿈만 같아. 너도 그치?

초원이 뭉치를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민주의 마음도 따뜻해진다.

98. 청주대 생명 공학 연구실 - 실험실 (아침. I)

출근하는 민주.

그런데 기준이 죽은 흰둥이를 손에 들고 풀죽어 있다.

민주 : (놀라) 흰둥이 왜 저래?

기준 : (풀죽어) 갔어. 밤새 하늘나라로 가버렸네

민주 : (다가와 흰둥이를 안타까운 시선으로 본다.)

흰둥이야 니가 너무 각별해서 그렇지, 늘 겪는 일이잖아.

기준 : (서랍을 열어 작은 종이 상자를 꺼내 흰둥이를 넣는다)

내 외로움 때문에 집착했던 놈인데, 너마저 가버리는구나.

그래도 너는 죽으면 슬퍼해 주는 사람이라도 있지,

난, 자다가 비명횡사해도 아무도 모를 거다.

(축 쳐져 상자와 꽃삽을 들고 나가는 기준)

민주 : 어디다 물을 거야?

기준 : 몰라. 양지 바른 곳.

민주 : (마음이 안 좋다) 자다가 비명횡사는 무슨. 괜히 쓸데없는 소리를 해 가지고 (쫓아 나가는)

99. 청주 대학교 화단 (아침. E)

기준이 흰둥이를 큰 나무 밑에 묻고 흙으로 덮는다.

그 과정을 지켜보는 민주.

기준 : 인간을 위해 희생당한 또 하나의 쥐였던 너의 삶.

널 기억하는 세상의 일인은 날거야. 잘 가라 흰둥
(착잡한 얼굴로 흰둥이가 묻힌 곳을 가만 보다 불쑥)
선배도 초원이 가족 찾아 줘.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데 귀담아 들어

민주, 기운이 쪽 빠지는

100. 밴드 연습실 (밤. I)

밴드, 연습이 끝났다.

밴드1 : 보컬의 임신으로 이번 페스티벌을 끝으로 잠정 휴업 들어가는데,
보컬, 신경 좀 쓰지?

수진 : 뭐야? 나, 견제 하는 중이야?

밴드3 : 형, 동생 결혼 하는데 축하 불러 달라고 저러는 거야

수진 : 당연하지. 뻔 한 걸, 뭘 그렇게 돌려 말해?

밴드2 : (수진 눈치 보며)... 괜히, 너 결혼식 참석하게 하는 거 미안해서 저런다. 고민을
어찌나 하는지. 댄 사람을 부르면 니가 서운해 할 것 같고,
그렇다고 널, 결혼식장에 부르자니 미안하고 그래 저래

밴드1 : (괜히 베시시 웃고)

수진 : (더 미안한) 그러지마. 나. 뒤 끝 없는 앤 거 몰라?
게다가 요즘 뱃속의 애 땀에 날라 다니는데

밴드3 : 하긴, 수진이 임신하곤 성량도, 느낌도 더 좋아 졌어

밴드1 : (표정 환해지며) 오케이. 접수. 담배 피러 가자. 임신부는 좀 쉬서

수진 : (짹웃으며) 어. 고마워

밴드들, 밖으로 나가고 수진, pc에 들어가 블로그를 보면 초원이 보낸 쪽지가 있다.
깨끗하게 씻긴 몽치를 안고 사진 올린 초원.

수진 :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고) 엄마가 개 키우는 거 허락해 줬다고?
초원이 무지 좋아하겠는데

답장을 쓸라하면 울리는 전화 벨. 민주당.
허걱 놀라는 수진.

수진 : 초원이한테 무슨 일 생겼나?
아니야. 블로그 드나드는 거 들켰구나 아이쿠
(망설이다 전화를 받아드는. 긴장 돼) 여보세요

101. 야외 락 페스티벌 공연 (낮. E)

야외, 공연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
몽치의 공연이 무대에서 펼쳐지고 잔디밭을 펼쩍이며 사람들, 무대와 하나가 된다. 수진,
무대를 중흥무진 누비며 페스티벌을 온 몸으로 느끼며 열창을 하고..
무대, 바로 앞에서 락 페스티벌의 분위기가 신기해 두리번거리면서도 음악을 즐기는 초원
의 모습이 보인다.
초원의 해 맑은 모습이 민주를 웃게 한다.

102. 락 페스티벌장 - 잔디 (낮. E)

무대에선 다른 팀의 공연이 펼쳐지고, 무대와 떨어진 곳에 한가롭게 자리한 돛자리에 도
시락을 꺼내 놓고 앉아 있는 수진과 초원, 민주, 몽치와 짱아

수진 : 공연, 재밌어?

초원 : (몽치와 짱아를 데리고 놀며)
언니, 너무 멋있었어요. 다른 사람 같았어요

민주 : (짹음이 부러운 듯) 이런 데가 있었네요. 옛날 생각나요.
이런 거량은 틀리지만 나름, 우리 세대가 누렸던 청춘이 있었는데.
초대해 줘서 고마워요

수진 : 막상, 연락하고 지내라는 허락이 떨어지고
초원이랑 뭘 할 수 있을 까 생각해 봤어요.
제 공연 보고 싶다고 한 말이 생각나서 불렀는데 재밌다니, 좋네요

민주 : 초원이, 많이 좋아했어요. 잠도 못 자더라고요..
그렇게 좋아하는 걸, 엄마라는 이유로 막고 있었네요

초원 : 근데 언니, 뱃속에 아기 있는데 그렇게 방방 뛰어도 되는 거예요?

수진 : 애도 내가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 노래 부르면 막 꿈틀댄다니까.

초원 : 언니도 어쩔 수 없는 엄마구나.

엄마는 내가 뱃속에 있을 때, 음악만 들으면 지휘를 했다는데

수진, 민주, 쿡 웃는다.

초원 : (자리 일어서며) 산책 갔다 올게요

민주 : 멀리 가지마

초원, 개 줄을 한 뭉치와 짱아를 끌고 뛰어 나간다.

민주 : (초원의 뒷모습 보며) 애기 낳기로 한 거 후회하지 않으세요?

수진 : ... 솔직히 지금은 너무 감사하기만 한데

훗날, 아이가 왜 자긴 아빠가 없냐고 할 때 힘들 것 같아요

민주 : (한 숨만 깊이 쉬고) ...

수진 : 죄송해요. 그동안 제 생각만 해서 힘들게 한 것. 뭣도 모르고

민주 : ... 저도... 초원이 가지면서 생각 안 한 게 아니에요

... 내 욕심에 그런 엄청난 일까지 저질러서 배가 부르는데, 막상 겁나더라고요.

이 아이가 원치 않는 세상을 내가 만들려 하는 건 아닌지

수진 : ...

민주 : 그런데 어느 순간, 생각이 바뀌었어요.

태어날 수 없던 생명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니

그 아이에게 전부를 해 주는 거더라고요.

수진 : (민주의 손을 잡는다)...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습니다.

민주 : 제가 감사하죠. 초원에게 가족을 만들어 주시고.

초원이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자란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예전에 왜 몰랐을까요?

103. 레스토랑 - 모임 룸 (저녁. I)

상우 부모가 잔뜩 상기된 모습으로 앉아 누군갈 기다린다.

잠시 뒤, 웨이터의 안내를 받으며 들어서는 수진과 민주와 꽃바구니를 든 초원.

상우 부모, 믿기지 않는 얼굴로 초원을 그렇거리며 본다.

상우 모, 벌떡 일어서 다가간다.

수진 : 초원아, 인사드려. 할머니, 할아버지야. 상우 아저씨 어머니, 아버지

초원 : 안녕하세요. (꽃바구니 상우 모에게 쑥 내밀며) 꽃 좋아하세요?

상우 모 : (꽃바구니 받으며) 할머니 꽃 많이 좋아해. 고마워.

(아련한 시선으로 보고는 초원의 얼굴을 감싸준다)

코하고, 입이 상우랑 꼭 닮았구나

민주 : (깊이 고개 숙여 인사하는) 안녕하세요. 초원이 엄맙니다.

상우 모 : (잔하게 본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고마워요...

이유야 어떻든, 상우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었으니

상우 부 : 그만 들어 와 앉아. 언제 까지 세워 둘 거야

수진, 이런 상황을 따뜻한 미소로 본다.

104. 스튜디오 (낮. I)

민주와 기준. 초원, 상우 부모와 수진과 돌쫂 된 수진 아기, 뭉치와 짱아,
가족사진을 찍는다.

사진사 : 보기 좋습니다. 이제 찍습니다.

한 프레임에 잡혀 스틸

초원 (E) : 결국, 이렇게 우리는 가족이 되었다.

남은 평생, 남자를 등지고 살 것 같은 엄마는 다시 남자를 받아들였고
영원히 없을 거라고 생각 됐던 아빠를 알았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고, 동생까지 생겼으니 가족도 대 가족이다.

시작될 수 없을 것 같은 가족이지만 난,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은 바른 아이로 잘 성장할 것이다.